

海清堂

2539년
가을호
제 7 호



송광사강원

중의 기본

요즘 송광사 도량에 왠지 허전한 기운이 감돕니다.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거나 큰방 공양을 할 때는 썰렁한 느낌마저 드는데, 도성당 노스님이 차지하는 자리가 그만큼 컸던가 봅니다. 마른 갈대잎 같은 팔십 노구를 이끌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삼시 예불과 대중공양에 나오시던 도성당 노스님이 문밖 출입을 못하고 계신지도 한 달이 넘어갑니다. 작년 겨울에는 눈길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시고도 달포만에 회복되는 노익장을 보여주시더니, 그런 노스님도 덧없는 세월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으신지 올 가을부터 기력이 급작히 떨어져 거동조차 불편한 처지가 되셨습니다. 노스님은 늘 삼시 예불에 가장 먼저 법당에 들어오시는데 특히 새벽에는 두시 반이면 처소에서 나오셔서 온 도량을 돌며 법당마다 삼배를 올리고, 종고루, 사천왕에게까지 예 올리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혹 도량석 도는 스님이 늦잠이 들어, 세시 십분 전에 대웅전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날에는 해청당으로 달려와 방문을 두드리시며, '일어나, 일어나!' 외쳐대셔서 강원의 전 대중이 놀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루는 송광사 창건 이래 처음 일어난 사건이라고들 하는, 늦잠이 들어 도량석을 빼먹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은 마침 노스님이 출타하고 안 계신 날이었습니다. 노스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팔십 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뭘니까?" "공부 못한거." "스님은 삼시 예불도, 대중공양도 한 번 빠지지 않으시는데, 공부를 못했다니 말이 됩니까?" "그건 공부가 아니라 중의 기본여!" 이런 노스님들의 그늘 덕분인지 송광사 강원에서는 다른 절 대중이 들으면 웃음거리가 될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작년 가을에 아랫마을 신도집으로 베풀기 울력을 나갔었는데, 몇 스님이 음료수로 나온 막걸리를 한잔씩 받아 마셨다가 청구시간에 문제가 되어 혼쫓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처사, 보살님들을 대신해서 학인들이 소임을 보는데, 올 추석 연휴에는 재무스님이 고생한다고 라면을 한 상자 사주었더니 라면 스프에 오신채가 들어있다고해서 상자를 뜯지도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계를 받자마자 원효, 경허스님의 무애행부터 배우려 드는 스님들이야 '갑갑한 송광사 중들' 이라 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중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차 례



조계의 물소리 중의 기본	
포토에세이	
2/가을 풍경	도웅
중국여행기	
4/여행길에 만난 곰돼지	정묵
산문	
8/평생도반	연각
10/행복한 사미	종지
30/월요일 아침	념혜
시	
9/별	기함
33/고향소식	정륜
기획연재 6	
14/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지운
특별기고	
19/부처님께 가는 길	현장
탁발기	
28/탁발을 마치고나서	일대
입방소감	
32/7일간의 휴가	도웅
원전번역	
34/영명지각연수선사수계	보철
36/왕내한에게 답하는 글	도선
38/팔령사 동재에서 자고 이경상에게 차운함	희일
학인논문	
40/如來藏思想이란 무엇인가	연해
화보	
24/화보와 소식	
13/원고모집	
44/후원안내	
44/후기	

가을 풍경

어랏차!
풍성한 계절이다. 울력마저도 흥겨울 때
농익은 결실
조심스런 손길로
한 해의 가을은 갈무리되네.

사진·글 : 도웅/치문





여행길에 만난 곰돼지

정목/사교

지 난밤 늦게 심양을 거쳐서
조선족 자치주인 연길에
도착했다.

연길의 밤 풍경은 이국적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한 도시를 찾
았는가 싶을 정도로 거리를 오가
는 사람이나 간판들이 낯설지 않
았다. 오히려 영어가 없이 한글과
한자로 쓰여진 간판으로 꾸며진
거리가 더 민족적이었다. 시 중심
부는 요령성의 수도인 심양보다

도 더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국내에 있는 놀이 시설도 모두 갖
추고 있는 것 같았다. 하기야 비
행기 승객의 거의 전부가 이남 사
람일 정도로 많이 찾고 있으니 당
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밤도 늦었고 출가자가 나
다니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바로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한 다음에 드디어 그토록
그리던 백두산으로 향했다. 그들

은
장백산이라
부른다지만 내게는 백두산일 뿐
이었다. 버스로 7-8시간을 달려야
하는 길이었는데, 중간에 민족시
인 윤동주님이 다니신 용정 중학
교에 들렀다. 시인의 서시가 쓰여
진 시비(詩碑) 뒤편에 있는 옛 교
사(校舍)는 이제 기념관으로 쓰이
고 있는데, 기념관은 이 학교의
설립 과정과 흐름, 그리고 이 학





(위) 서시의 작자인 민족시인
윤동주가 다닌 용정중학교의
옛교사 지금은 기념관으로 사
용된다.
(아래) 백두산 가는 길 옆의
초가집들



에 입각한 연길시의 교육 정책이
쓰여 있어서 이곳이 우리와 체제
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시비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올
리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수행자의 삶을 살
고자 다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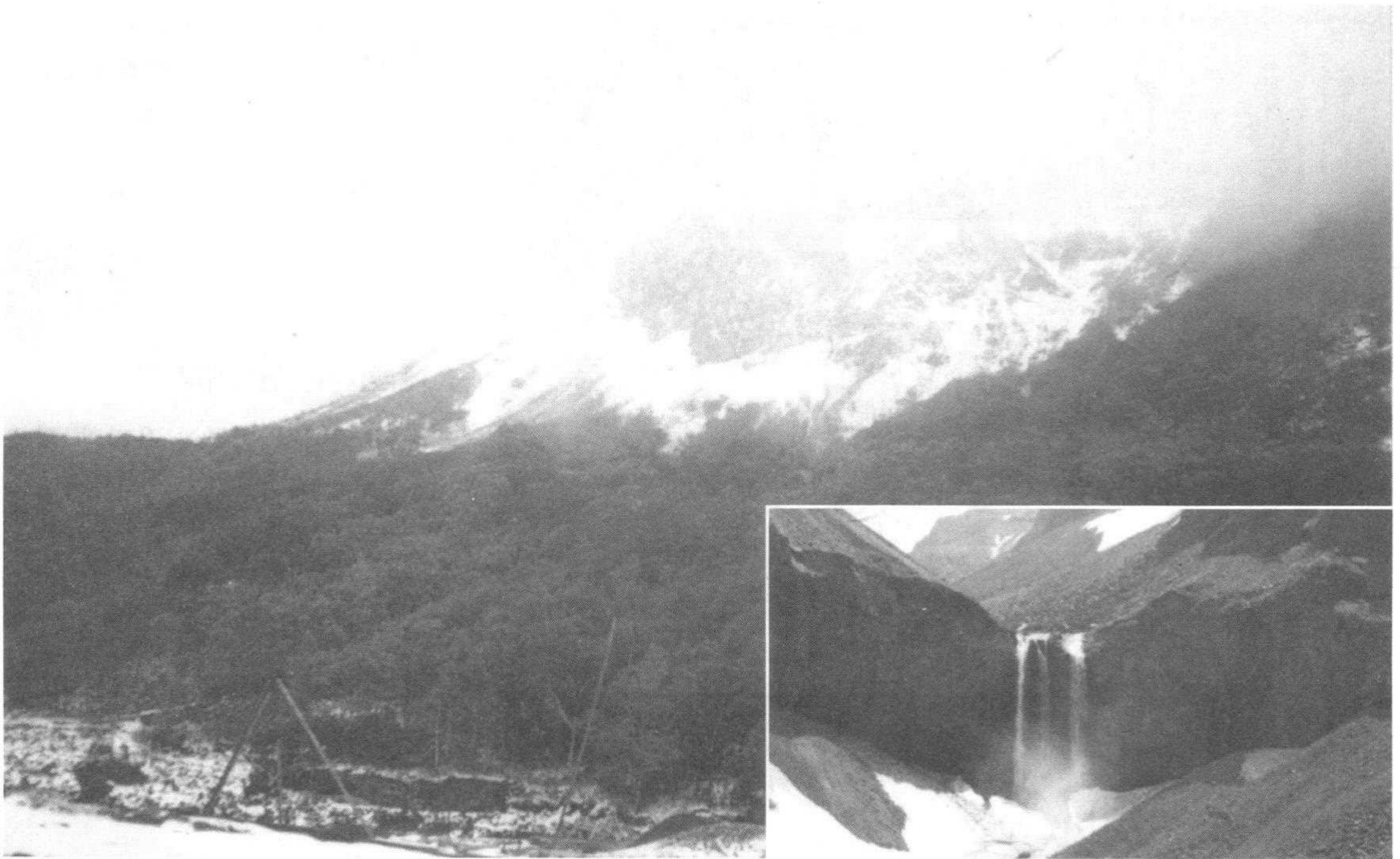
가는 길에 해란강도 있었고 일
송정도 보였다. 해란강은 그리 큰
강이 아니었고, 소나무 한 그루가
드리웠던 일송정엔, 지금은 사람
손에 의한 정자가 눈에 들어왔다.
끝없이 펼쳐질 듯한 이 광야에서
우리 선열들은 그렇게 말을 달리
며 민족 정기를 세웠으리라.

그때 누군가 “선구자”를 불렀고
술렁이던 차안은 숙연해졌다. 출
가자로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선구자로 살고 있는가?

백두산 가는 길은 비포장이었
고, 눈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농가
는 옛 고향 마을처럼 초가지붕이
어서 더욱 정겨웠다. 같은 마을인

교와 함께한 민족적 발자취를 살
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좀
우스웠던 것은 그 기념관 설립에
기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진
이 한쪽에 보란듯이 걸려 있는 것
이었다. 무주상보시라는 불가의
말이 아니라도 왠지 낯간지럽게

느껴졌다. 마침 아침 조회시간인
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이고 있
었는데, 입은 옷차림하며 모이는
행동 거지가 어릴 적 우리 모습과
너무도 닮아 보였다. 담벽에는 칠
판이 쪽 걸렸고, 거기에는 백묵
글씨로 사회주의 사상 고취와, 그



(큰 사진) 눈에 덮힌 백두산. 백두산에는 이미 눈이 내려서 천지까지는 등반하지 못하고 다음 인연에 기대하기로 했다. (작은 사진) 장백폭포의 위용.

데도 한족의 초가와 우리 민족이 사는 초가는 모습이 달랐다. 마치 새마을운동을 하기 전 고향 동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보기에 정겨웠지만, 이 북간도 땅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죄송스러울 뿐이었다.

간혹 빗줄기가 뿌려 천지를 보지 못할까 마음을 조이며 머나먼 길을 달려 백두산 밑에 이르르니 다

행인지 불행인지 산은 눈으로 덮혀 있었다.

눈 탓에 차도 오르지 못했고 시간도 없어서 백두 정상에 올라서 천지는 보지 못했지만, 장백폭포 앞에서 바라보는 눈과 운무에 쌓인 백두는 민족의 영산(靈山)임을 실감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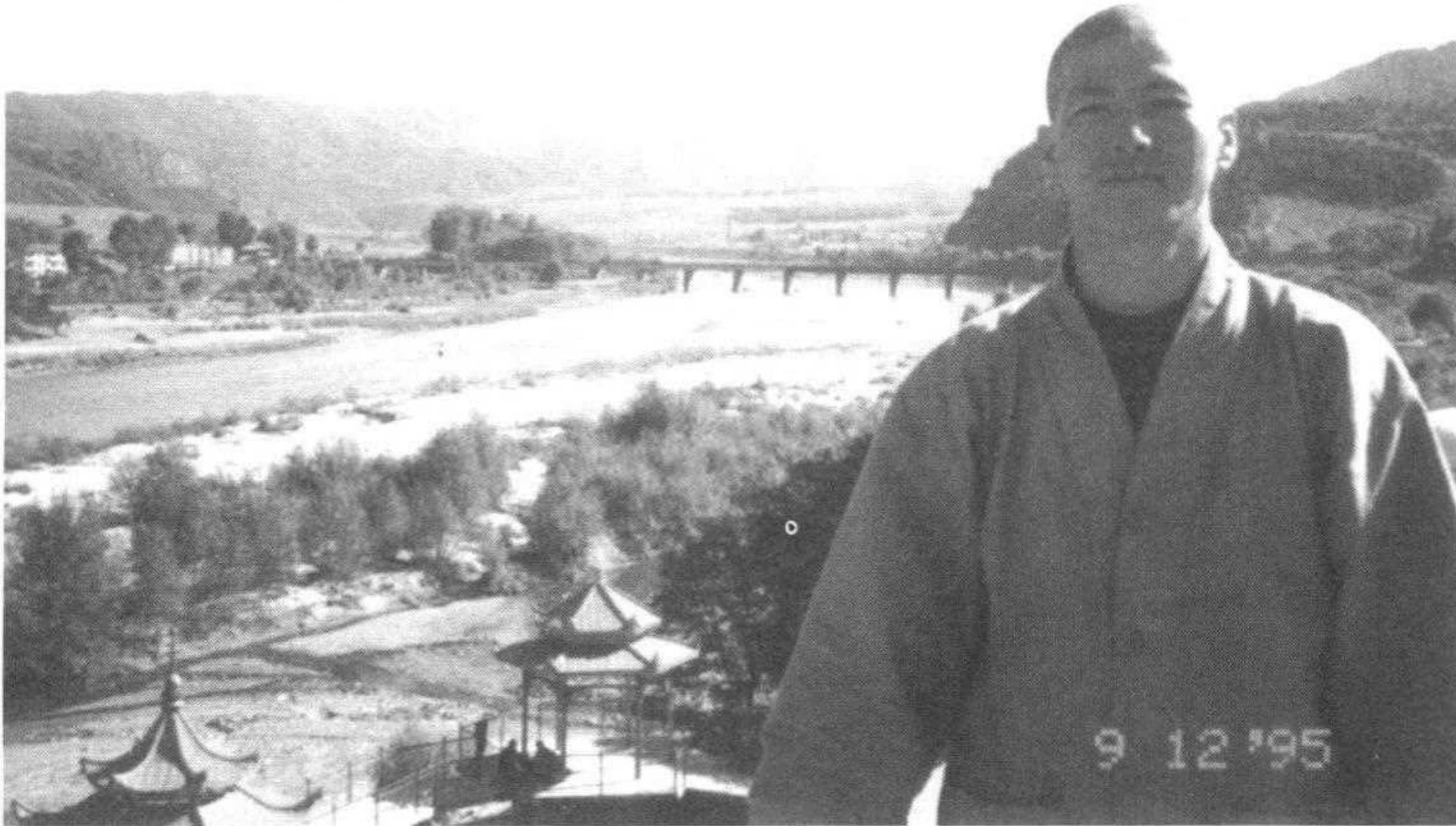
거칠게 부는 눈보라 속에 이따금 자취를 드러내는 기세며, 계곡을 타고 흐르는 온천수에 산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했다.

이 장엄함을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무딘 재주로는 그저 '아!' 하는 감탄사와 함께

입을 벌리고 있을 수 밖에. 그런데 한줄기 뜨거움이 솟구쳐오르는 건 왜였을까. 그것은 이 민족의 영산에 안겼다는 감회와 함께, 단군 이래 우리 땅을 이민족에게 앗기고 궁벽진 곳으로 밀려나서,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여 서로 나눠 제 땅으로 당당히 오가지도 못하고, 빙빙 돌아가며 우리땅 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이들에게 돈 갖다 바치며 와야 한다는 서러움이였다.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다음 일정을 포기하고 걸어서라도 오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너무

한·중 국경도시인 도문의 두만강변에서.



많은 무리가 따르는 탓으로 그저 자꾸만 뒤돌아보며 다음 일정지인 두만강변 도문으로 향했다.

노래 속에 나오는 두만강 푸른 물은 옛 말이 되고, 찌든 물이 흐르는 그 곳에서 중국쪽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저 편으로 우리의 반쪽이 보였다.

가로질러 놓인 저 다리를 건너 한숨이면 우리의 반쪽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내달리려 하는 발길과 자꾸만 솟아오르는 감을 누르기란 쉽지 않았다.

이곳 도문은 옛날 수월스님의 전법지로 화엄사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스님이 오셔서 중창

불사를 하려 한다가에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른다는 말 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서 화엄사가 복구되어 다시 이곳에 부처님의 법음이 널리 퍼져서 이곳의 모든 이들이 정법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 민족 모두의 화합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시 연길로 향했다.

연길로 돌아오는 길에 가이드 아가씨가 꼭 들려야 할 곳이라며 곰쓸개 공장으로 일행을 이끌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마다 곰쓸개를 찾으니 아예 공장을 차렸나 보다.

살아있는 생명을 학대하면서까

지 보잘것 없는 자기 몸뚱이를 지키려 드는 인간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우리는 곰 사육장을 돌아보았다.

사육장 우리 안에는 수십 마리의 곰들이 마치 돼지처럼 키워지고 있었다. 가끔씩 으르렁대보지만 그것으로는 신세 한탄도 못되는 처량한 곰돼지 신세들이었다.

씨앗은 곰이기에 비록 곰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연(緣)은 그들을 돼지로 만들었다. 어쩌면 돼지보다 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살아서 쓸개를 강탈당해야 하는 곰돼지는, 부처의 성품을 망각하고 그릇된 업 속에서만 노닐려 하고, 지혜만 제일이다 하고 계율과 복짓는 일은 멀리하려는 우리 중생과 무엇이 다른가 반문해 본다.

북경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연착되어 공항에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힐 때 자꾸만 떠오르던 곰돼지의 모습……

“지금 그대는 곰돼지로 살고 있는 않으십니까?”



사 권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맘에 드는 친구가 생겼다. 거의 매일 만나는 친구인데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 순수함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물론 송광사에 입산할 때부터 가끔 만날 수 있었지만 행자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던 친구. 하지만 은사 스님을 처음 찾아뵈올 때 동반해 주었고, 그 뒤로도 광원암에 오를 적엔 항상 말없이 함께 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이 해줄 친구라서 더욱 소중한 사이가 된 듯 싶다. ‘큰절에서 광원암까지의 멀지 않은 길’ 사실 이 친구가 나를 포용해 주지 않았다면 은사 스님과 사형 스님들을 어찌 감히 만나 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욱더 고마운 도반으로 다가온다. 또한 이 친구



에겐 친구들이 아주 많아서 항상 신선한 느낌을 주어 좋다. 수없이 늘어선 각양각색의 나무들, 풀, 가끔 만나는 동물 친구들, 그리고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며칠 전에 내려오는 길에 흔히 청솔모라 부르는 날다람쥐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초면이라 쑥스러운지(?) 도토리를 두 손에 꼭 쥐어 채 나무 위로 쏜살같이 올라가 버렸다. 나도 처음 보는 친구라서 신기하고 반가워 한참을 쳐다보

다 늦게 인사를 건넸더니 두 손에 쥐었던 도토리를 능숙한 솜씨로 돌리면서 껍질을 벗기더니만, 내겐 껍질을 던져주고는 알맹이는 자기 입에 꼭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더 높이 올라가 버렸다. ‘너는 껍질이나 먹어라’는 듯이... 처음 만난 친구에게 정중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문득 혼침에 빠져있던 내게 어떤 작은 깨우침을 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나는 혹시 진리를 찾는다면 도토리 껍질 받아먹을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시주물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을 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말이다. 한참동안을 이 친구가 사라진 나무 끝을 쳐다보면서, 출가할 때 세속적인

정에 마음 아파하시던 분들과 지금 이 회색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중의 많은 고마운 분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떠오르면서 잠시 모든 생각이 멈추어 버렸다. 출가하여 잘못 살 경우의 과보를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몰려들기까지 했다.

이제 겨우 불법의 세계에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사미로써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야 없겠지만 어쨌든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었다. 불법을 찾는다면 쓸데없이 외형적인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인도해 주시는 스님들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있는지 몸과 마음이 지금 받고 있는 공양에 부끄럽지 않으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던 만큼, 정말 잘 살아야겠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 친구는 계속하여 작지만 큰 가르침을 보여주는 귀중한 도반이 되어 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마치 가을의 맑은 하늘처럼...

별

기함/치문

눈부신 무명 벗기고
너는 비로소 어둠 안에서 깨어난다.

둘이 하나, 열이 하나 되어
너희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시간을 허물고 공간을 허물고
화엄의 바다에
등대의 불빛이 된다.

잠에서 깬 마디마디 숨소리
쉬지 않는 걸음걸음 발소리에
너는 비로소 진실로 그렇게 되었다.

맑고 맑은 창공에 귀 멀고멀어
밝고 밝은 햇빛에 눈 멀고멀어
숨소리는 광명의 암흑 속에서 미혹했다.
이제 그는 어둠의 광명 만나 춤을 춘다.



아침부터 보슬비가 내린다. 아침공양을 마치고 나서 곱게 손질해 두었던 풀옷으로 갈아입었다. 비오는 날 무슨 풀옷으로 갈아입느냐며 도반스님들이 한마디씩 한다. 효봉 큰스님께서는 출가하신 날이 되면 새옷으로 갈아입으셨다고 한다. 열흘 후면 네번째 맞이하는 하안거 해제다.

나는 대학진학에 실패하고, 일년정도의 직장생활 그리고 방위근무 후 출가를 결심을 하게되었다. 평소 학생회 활동을 했던 대구 관음사 주지스님을 뵈고 말씀드렸더니 '하고 싶어서 하는 출가 누가 말려'라고 하시며 출가 하라고 하셨다. 주지스님께서는 처음에 해인사나 통도사로 출가 하라고 하셨지만 왠지 송광사로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반대하셨다가 결국 허락하셨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몇 번을 노력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벌써 삼년째 병석에 누워계시는 어머님과 많은 연세에도 노동 일을 하시는 아버님 두 분께 자식의 자리를 버린다고 말씀드리지 못했다. 나는 밤새워 부모님을 생각하곤 울었고 송광사

행복한 사미

종지/사집

를 생각하면서는 웃기를 번갈아 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아버님께 아침을 차려드리고 일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얼른 설거지한 후 어머님께 불일 보러 나간다고만 말씀드리고 편지 한 장으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먼 여행을 예견이라도 한듯 아픈 몸을 이끌고 마루까지 나와서는 잘 다녀오라고 하시며 손짓을 하셨다. 나는 눈물이 핑돌아서 그만 대문을 열고 버스정류장을 향해 달렸다. 고속버스 정류장에 가는 버스를 탔다. 그런데 먼저 나가신 아버님이 다음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타시는 것이었다. 나는 얼굴



이라도 마주칠까 숨다시피해서 고속버스 정류장에 내렸다. 보슬비가 내렸다. 그리고 순천행 첫차가 창녕을 지날 때에는 장대비로 변한 빗물이 창밖을 적시고 있었다. 점심먹는 것도 잊고 다시 송광사행 버스에 올라 오후 늦게야 절에 도착했다. 낯설지 않은 도량



을 참배하고 관음사 주지스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재무스님을 찾아뵈었다.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관음사 주지스님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며 원주시자실로 안내해주셨다. 행자생활은 일주일 대기와 삼천배, 그리고 울원에서 삭발 후 행자실에 입방하는 것으로 시

작되었다. 규율이 엄한 송광사 행자생활 가운데 늘 가슴 속에는 관음사 주지스님이 자리잡고 있었고, 시간이 가고 중노릇하는 법을 배우면서 더욱 관음사 주지스님 생각이 났으며, 절집안의 전통인 스승, 상좌의 인연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는 더욱 간절히 관음사 주

지스님을 생각했다.

마침 그해 가을, 효봉 큰스님 추모재에 관음사 주지스님께서 오셨다. 먼발치에서 스님을 뵈오니 설레이는 마음에 그만 고개를 떨구었다. 추모재가 끝나고 공양 후에 만나볼 수 있었는데 스님의 만시봉인 통영 미래사 주지스님이 시봉으로 받아주시기를 청했으나 송광사에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 여기에서 정하라고 몇 번 말씀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다. 미래사 주지스님께서서는 아무 걱정말고 행자생활 잘하고 있으라고 하시며 가셨다.

종무소에서는 은사스님이 미리 위탁한다는 말이 없으면 말사로 가지 못한다고 했다. 종무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새벽예불을 마치고는 첫차로 대구로 갔다. 관음사에 도착했을 땐 점심공양 시간이 훨씬 넘어 있었다. 따뜻하게 맞아주리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오후 내내 마당에 선 채로 꾸지람을 들었다. '왜 왔느냐. 그곳에 있지 누가 오라고 했냐. 너 있을 방 없으니 당장 가거라' 하시는 꾸지람이 왠지 싫지 않았다. 저녁예불을 마친 후 스님께서서는 공양하시

러 가셨고 나는 법당구
 석에 앉아서 부처
 님께 옆드려서
 ‘부처님 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
 고 있는데 공양
 주 보살님께서 작
 은 목소리로 ‘행자님’하
 며 부른다. 보살님의 손짓을 따
 라 후원에 가니 공양상이 차려
 져 있었다. 아침도 점심도 못먹
 었던 차에 허겁지겁 공양을 하
 는데 주지스님께서 절대 방에
 서 재우지 말라고 하셨다며
 ‘오늘밤은 법당에서 지내라’고
 하셨다. 공양을 마치고 따뜻한
 보리차 한잔을 마시고 나는 법
 당으로 갔다. 추우면 일어나 절
 하고 땀나면 앉아서 좌선하고
 다시 땀이 식으면 일어나 절하
 고 좌복으로 무릎을 덮고 하면
 서 밤을 새웠고 새벽예불을 모
 션다.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공
 양주 보살님이 또 부르셨고 아침
 공양을 주지스님 몰래 먹었다. 어
 제 호통 치신 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주지스님, 무료함을 달래



**그날 저녁 예불을 모신
 후에 법당구석에 앉아
 있으니 주지스님께서
 법당문을 열고 ‘너, 밥
 안먹어? 이리와.’ 하셨
 다. 놀란결에 후원 식
 당에서 따뜻한 공양을
 먹었다.**

기 위해 나는 마당의 풀을 뽑고,
 낙엽을 쓸고, 책읽는 등으로 시간
 을 보냈다. 저녁공양도 역시 주지
 스님 몰래 먹고, 몸은 피곤했지만
 추위 잠들지 못하고 또 밤을 지새

웠다. 다음날 아침공양도
 역시공양주 보살님
 이 주셨다. 공양
 을 먹고나니까
 보살님께서
 49재가 있다
 고 하셨다. 그
 래서 공양 후
 마당을 쓸고 있으
 니까 주지스님께서
 걸레를 하나 들고 오시며
 ‘너, 나 몰래 밥먹었지. 공밥 먹
 으면 복 감한다.’고 하시며 걸레
 로 법당문 창틀을 닦으라고 하
 션다. 이틀만에 듣는 스님의 목
 소리에 나는 기뻐서 열심히 창
 틀을 닦았고 화단 손질까지 했
 다. 잠시 후 스님들과 보살님들
 이 오셔서 49재가 시작되었고,
 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법당
 앞 마당 한쪽에 있다가 송광사
 에서 보았던 대원각 노보살님
 을 만났다. 내 손을 잡으며 ‘잘
 왔어요, 잘왔어요.’ 하시며 공양
 주 보살님께 대충 이야기를 들
 었다고 하시며 ‘걱정말고 있어요,
 제가 주지스님께 말씀드려 볼게
 요.’하셨다. 노보살님께서서는 주지
 스님방에 들어가셨다가 한참 후
 에 나오시며 걱정말고 꼭 있으라

고 하시며 가셨다.

그날 저녁예불을 모신 후에 법당 구석에 앉아있으려니 주지스님께서 법당문을 열고 ‘너, 밥 안 먹어? 이리와.’ 하셨다. 놀란결에 후원 식당에서 따뜻한 공양을 먹었다. 그리고 공양주 보살님을 밖으로 부르시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고는 당신 방으로 가셨고, 보살님께서서는 신발도 미처 못벗고 방으로 들어와선 내 손을 잡으며 ‘행자님 이제 됐어요, 됐어요’하셨다. 오늘부터 당신 시봉스님들이 오시면 쉬어가는 방에 있게 해주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그것은 시봉으로 받아주겠다는 뜻이라며 상을 물리시는 것이었다. 그순간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그해 겨울을 관음사에서 행자생활로 마쳤고, 이듬해 봄에 종지(宗旨)라는 법명을 받아 행자교육원에 가게 되었다.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이튿날 아침에 송광사 설법전에서 보성(普城) 큰스님을 전계화상으로 모시고 사미계를 받고나서 사중 어른스님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탑전스님께서 ‘너 어떻게 관음사 스님 시봉했어. 그 스님 시봉 잘 안받는데, 법명이 종지라고? 간장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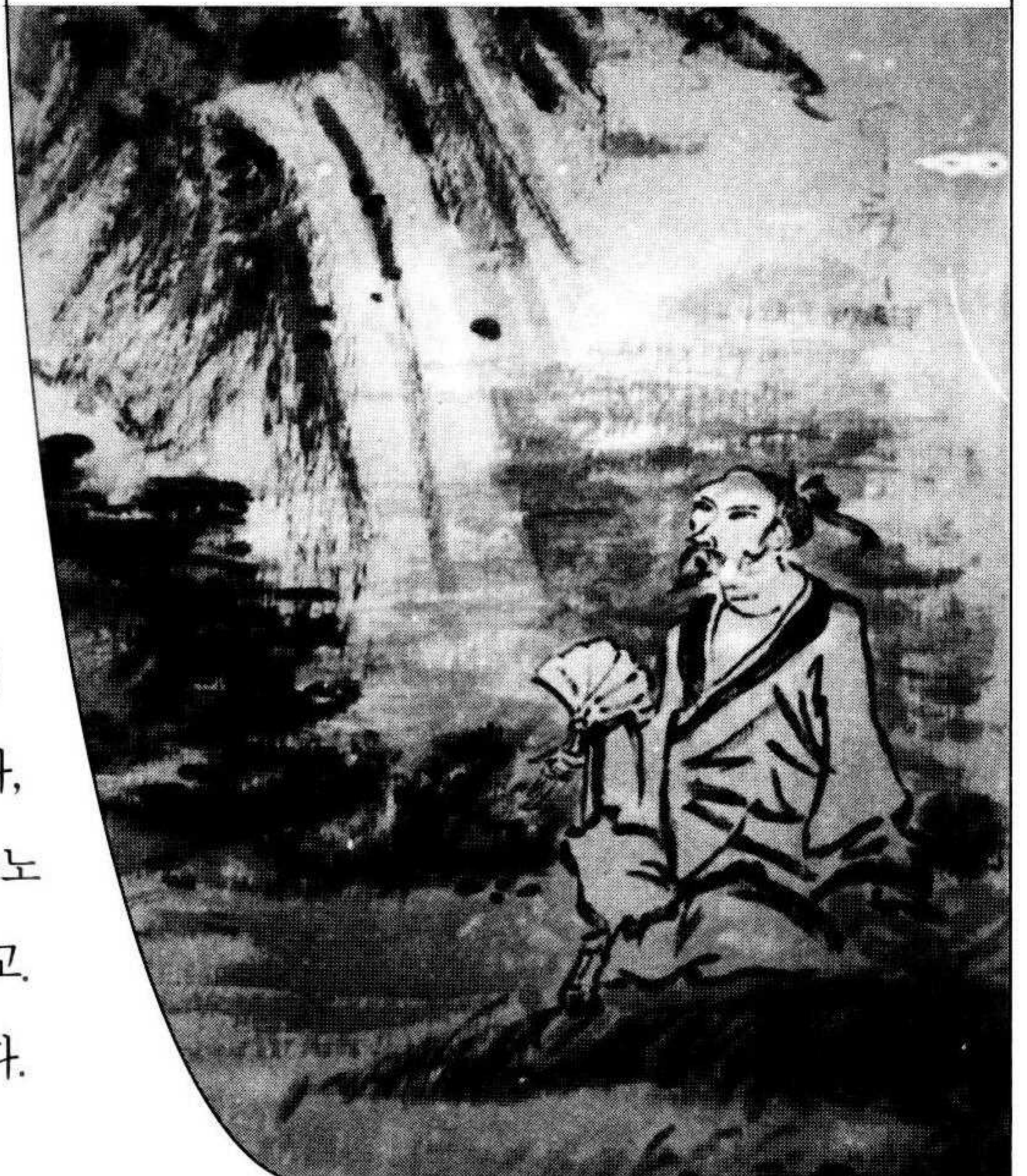
지나 된장 종지냐, 아니 조계 종지가 되고 도종지가 되어야 해.’ 하시며 격려해주셨다. 점심을 먹고나서 다른 도반스님들은 강원에 방부를 들였고, 나는 은사스님 시봉하고 난 후 강원에 오기로 결심하고 대구로 갔다. 관음사에 도착해서 은사스님께 구배를 올렸다. 그날밤 나는 가사 장삼을 열 번도 더 입어 보았다.

은사스님을 일년간 시봉하고 이듬해 봄에 강원에 입방했다. 지금은 사집반, 며칠 있으면 하안거 해제다. 해제하면 은사스님께 가서 못했던 시봉을 해야겠다, 옛 어른스님들의 중노릇하신 이야기도 듣고, 나는 행복한 사미다.

원고모집

다음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글의 형식이나 주제는 자유이며, 진실되고
소박하며 꾸밈이 없는
글이면 환영합니다.
강원대중 모두의 해청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오니 언제라도
편집실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해청당 편집실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지운/강주스님

- 目 次 -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 2) '공부' 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1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法과 般若智慧가 간격이 없이 一念으로 相應할 때 일어난다. 수행이라는 것도 바로 법과 지혜가 상응해 가는 힘을 말한다. 상응해 가는 힘이 상승하거나 후퇴할 수 있는 것은 수행하는 방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수행방법이라도 상응하는 것이 시간차없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頓修이지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漸修가 된다.

法은 頓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행자는 근

기가 있어서 頓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수행의 속도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지말적인 문제일 뿐이다. 수행은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는 善知識이 第一義的인 해결문제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지도해 주는 스승이 없다면 제도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이차적 문제는 오히려 수행에 방해를 주는 요소를 해결하고 수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청구다. 이 다음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왜 制度的 장치가 第一義的이지 못한가하면 깨달음의 문제는 수행하는 당사자의 마음자세와 수행중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경지의 판별은 제도적 장치를 하더라도 제도가 판별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은 지혜를 돈발시키고 동시에 지혜에 상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법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즉 無常, 苦, 無我, 空, 眞如, 法界, 中道, 《般若心經》에서의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등이 모두 법의 本性이다. 이러한 法의 性은 곧 존재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존재가 법의 모습을 나타낼 때, 거울과 같이 존재의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비쳐 준다. 이제껏 잘못 알고 있었던 갖가지 邪見과 고정관념이 타파되게 한다. 이렇게 무명번뇌가 파괴될 때 마음이 정화된 지혜가 법과 상응하고 있음을 말한다.

비유를 들자면, 배가 망망대해 가운데에서는 등대불을 보고 향해해야만 건널 수 있다. 그 때 등대의 등불은 대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里程標이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표식이 된다. 등대의 등불이 법이라면 그 불빛을 보는 것은 지혜이다. 이 지혜와 법의 등불과 상응이 되면 生死의 大海를 건너게 되는 것이다. 상응이 되지 않으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향해하거나 침몰하는 災難에 빠지게 된다. 이때 건너려고 노력하는 정진은 수행의 힘이다. 이 정진의 힘에 의하여 수행자의 배가 질주하게 되면

서부터 무명번뇌에 의해 생긴 생사의 바다가 점점 거리가 좁혀지면서 법의 등불에 도달하면 곧 생사의 바다를 건넌 것이다.

반야지혜는 파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번뇌가 일어나는 최초의 근원을 추구해 가는 성질이기도 하다. 마치 十二緣起의 老死에서 차례로 근원으로 올라가서 최후의 끝인 生死의 根源인 無明을 타파하는 것이다. 無明에 대하여 《大乘起信論》에서는 “不覺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業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¹⁾라고 하여 업의 모습이 마음의 움직임이고, 이것이 무명이라고 하고 있다. 또 《海東疏》卷三에서 설하기를 “깨달으면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움직인다는 것의 상대를 들어서 도리어 나타낸 것이니 始覺을 얻을 때에는 곧 動念이 없는 것이다.”²⁾라고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명이 곧 動念이고 動念은 妄念이고 業의 모습이다.

또 무명을 忽然念起³⁾라고 함과 같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무명이고 업이다. 홀연히 일어나는 생각의 無明業에 의하여 지극히 미세한 三細와 거친 생각인 六추의 흐름 즉, 意와 意識의 轉變에 의하여 갖가지 虛像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 갖가지 고통을 받는 狀況이 된 것이다.⁴⁾

무명은 忽然念起인데 이러한 動念이 생기는 이유를 《大乘起信論》에서 ‘一法界임을 모르는데서

1). 元曉撰 〈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三 “復次依不覺故生三種相 與彼不覺相應不離 云何爲三 一者無明業相 以依不覺故心動說名爲業” 〈韓國佛教全書〉p. 1-755下.
 2). 元曉撰 〈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三 “覺則不動者 舉對反顯 得始覺時 則無動念” 上同 p.1-756 上.
 3). 元曉撰 〈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四 “以不達一法界故 心不相應 忽然念起 名爲無明” 上同 p. 1-763上.
 4). 元曉撰 〈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三 “世間一切境界 皆依衆生無明妄心而得住持 是故一切法 如鏡中像 無體可得 唯心虛妄 以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故” 上同 p. 1-759 下.

忽然히 일어났음을 무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忽然'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부터 마음의 움직임은 生·住·異·滅 하는데, 지혜가 돈발하면 이 動念이 不生不滅하는 不動의 법으로 돌아간다. 이 법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곧 滅→異→住→生이다. 즉 生은 마음이 최초로 일어난 忽然念起한 근본무명이다. 지혜는 이렇게 부동으로 나아가면서 최초의 움직임을 최후에까지 추적하여 파괴시키는 것이 지혜의 본성이다. 이것은 곧 법과의 상응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깨달음을 말한다(覺義者 等虛空界, 허공은 不動의 비유이다). 즉 법과의 상응관계에서만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상응관계가 깨달음의 척도가 된다.

修行의 목적은 이 '일어나는 생각(念)'을 제거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데에 있다. 《起信論》은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生·住·異·滅하는 動念(心動)을 觀照하여 생각(念)의 거침(麤)에서 微細해짐에 따라 깨달음의 경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움직임을 근원을 추구하여 가는 지혜가 법과의 상응으로 인하여 滅의 단계에 이른 것은 凡夫覺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나간 앞의 생각이 惡하더라도 뒤 생각이 능히 앞의 악한 생각을 반성하고 그친 경지라고 하는데,⁵⁾ 이 凡夫覺은 身口七支惡業이 소멸함을 말한다. 신구칠지악업이란 몸으로 짓는 殺生·도둑질·邪淫과 입으로 짓는 妄語·兩舌·惡口·綺語 등의 일곱 가지를 말

한다.⁶⁾

念의 달라짐(異)은 마음이 밖으로 향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모습이다. 그리하여 대상에 대하여 貪·瞋·癡·慢·疑·見의 여섯 종류의 생각이 일어난다. 이러한 異의 모습을 법과 상응하는 觀照般若에 의하여 변화하는 생각이 사라지면 이것을 相似覺이라고 한다.⁷⁾

念이 住하는 모습은 앞의 異相의 여섯 종류 거친 생각은 모두 소멸했으나 안으로 無意識이라고 할 수 있는 阿賴耶識을 攀緣(認識)하는 第七末那識의 미세한 自我觀念(我癡·我見·我愛·我慢)이 머물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미세하게 住하는 자아관념을 관조하여 住하는 자아관념이 사라지면 이것을 人我執이 사라진 隨分覺이라고 한다.⁸⁾ 그러나 아직 法我執이 남아 있는 상태이니 최초 一念의 生하는 相마저 사라져야만이 法我執이 없어진다.⁹⁾

念의 生하는 모습은 앞의 住相의 생각보다 더욱 미세하다. 이는 本覺이 根本無明의 熏習에 의하여 主客未分の 한 생각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즉 이는 業相이다. 그 다음 이 業의 動念을 의지하여 轉相이라는 主觀이 형성되고 그 다음 이 能見의 주관에 의지하여 境界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세 가지 生相은 阿梨耶識의 位에 있는 모습이다.¹⁰⁾ 이러한 미세한 생각을 깨뜨려서(覺心初起) 최초의 한 생각이 영원히 사라지면 見性하게 되

5). 元曉撰 〈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二 上同 p. 1-749 下.

6). 上同 p. 1-750 中, 1-751 上.

7). 上同 p. 1-750 中, 1-751 上中.

8). 上同 p. 1-749 下, 1-750 中, 1-751 中.

9). 上同 p. 1-751 中.

고 마음의 常住가 되어 이를 究竟覺이라고 한다. 念의 生하는 실상을 覺하는 즉, 覺心初起 心無初相하는 것을 究竟覺이라고 한다.¹⁰⁾ 이 究竟覺의 내용이 無念이고, 무념은 곧 頓悟이다. 돈오란 忽然念起의 業이 다 사라진 경지임을 나타낸다.

2

이와 같이 지혜가 법과 상응하면서 무명번뇌를 타파하여 근원으로 추구하는 성질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과 지혜의 상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법자체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즉

- 法 —
- (1) 無始時來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如來의 出世 不出世에 관계없이 無始時來로 常住한다.
 - (2) 一切法の 依止
비록 경전상에 이 법이 一切法の 依止가 된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俱舍論>卷九에는 十二緣起가 緣起의 면에서도 또는 緣已生法の 면에서도 함께 [일체법을 攝한다]고 하고 있어 十二緣起가 모든 존재의 依止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모든 존재가 그대로 연기이기 때문이다.
 - (3) 流轉緣起
이 법이 相依性(idappaccayata)임을 설하는데 이 相依性은 十二緣起의 [各支의 關係]를 보인 것으로, 즉 [無明으로 緣해서 行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의 行이 無明을 緣으로 하고 있는 것을 相依性, 즉 [이것에 緣하는 것](idappaccayata)으로서 보인 것이다. 이 相依性을 公式化한 것이 [此有故彼有·此起故彼起·此無故彼無·此滅故彼滅]의 교설이다. 이것은 十二緣起의 근본사상을 보인 교설로서 十二緣起의 冒頭에 누차 설해지고 있다. 따라서 十二緣起의 順觀의 流轉門에 의해서 苦의 發生으로 迷의 生存이 성립하는 점이, [此有故彼有·此起故彼起]의 법칙에 근거하여 [이것(無明)이 있기 때문에 저것(生老病死 등의 一切苦, 일체의 趣)이 있다.]에 해당한다.
 - (4) 還滅緣起
逆觀의 還滅門에 의해서 苦의 消滅에 의한 涅槃의 證得이 이루어지는 것은 此無故彼無·滅故彼滅]의 법칙에 근거한다. 즉 [이것(無明)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것(生老病死 등의 一切苦)이 소멸한다.] 그리고 無明의 消滅은 곧 열반의 證得이므로, [此有故彼有·此起故 彼起의 법칙에 근거하여 이것(無明의 消滅)이 있기 때문에 저것(涅槃의 證得)이 있다.]에 해당한다.

10). 上同 p. 1-750 上中.

11). 起信論海東疏卷二 木版本 p. 十八~二十三 參照.

라고 하여 법의 유전과 환멸이 바로 법과 번뇌와 상응이 유전연기이고 법과 지혜와의 상응이 환멸연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과 지혜의 상응하게 하는 노력이 곧 수행이고 상응하게 하는 방법이 수행방법임과 동시에 수행체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행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는 원리 즉 법칙은 역시 법이 갖고 있는 인의 힘이다.¹²⁾

이러한 성격을 가진 법이 없다면 깨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지몽매하든 깨달았든 관계없이有情無情의 일체 모든 존재는 법 그 자체이다. 법이라는 진리에 미혹하므로 중생이라하고 육도 윤회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깨달았으므로 부처라고 하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윤회하는 법의 모습은 流轉緣起라고 하고 생

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의 모습을 還滅緣起라고 하는 것이다.

즉, 觀照하는 지혜에 의해서 존재가 법으로 나타나므로 그 관조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관조에 의하여 이렇게 나타난 존재가 연기하는 법임이 드러남으로 마음은 깨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관에 의해서 관은 법에 의해서 깨침은 오는 것이다. 《華嚴經》十廻向品第二十五之六에서 “보살은 법이緣을 따라 있음을 알아서 일체 행하는 바 修行道를 어기지 않는다”¹³⁾라고 하듯이 이러한 깨침은 관과 법과의 관계가 契合하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서로 상즉상입의 연기하는 수행의 법칙이다.



12). 말하자면 모든 존재나 현상은 이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법칙에 의하여 불교의 모든 수행과 수행체계가 이루어진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불교의 모든 수행과 수행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이 깨쳐 들어가는 문이 역할 때문에 가능하다. 山陰悟先사는 “頓悟正因 便是出塵階漸 此則破三界二十五有”라고 하여 “頓悟正因”은 理則頓悟를 말한다. 돈오의 내용이 正因이다. 정인은 佛性을 말한다. 그런데 돈오의 내용은 무소득이나 무념을 말한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불성, 무소득이나 무념이 정인이라는 말이다. “便是出塵階漸”은 事非頓除의 뜻이다. 이말은 깨침의 내용이 인이기 때문에 이 인의 힘에 의지하여 습을 제거함을 말하는 곧 수행은 출발함을 말한다. 그 결과가 “此則破三界二十五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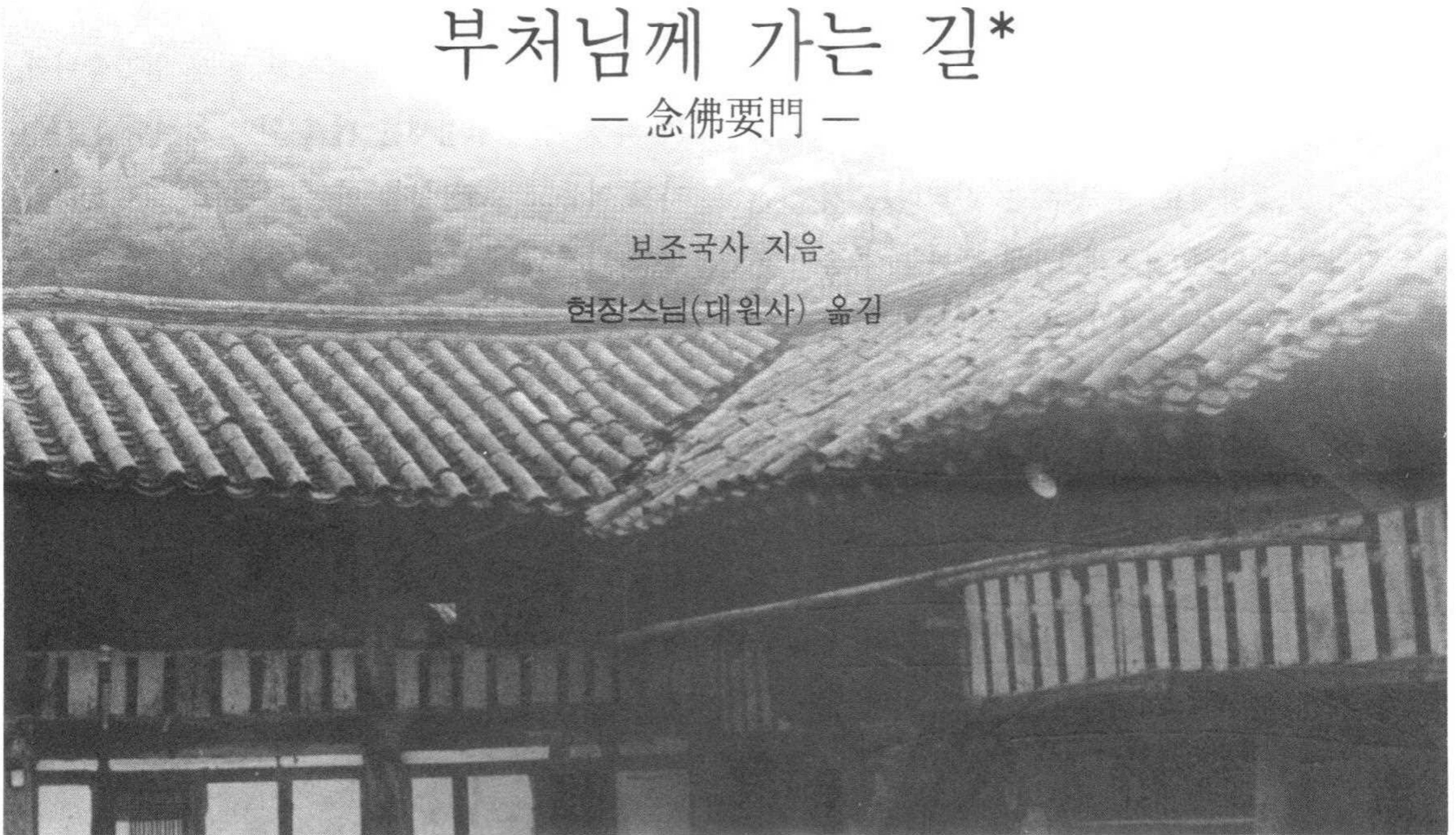
13). 《八十華嚴經》卷第二十八 “菩薩了法從緣有 不違一切所行道”(高麗大藏經 木版本 第二十四幅 後面) ### 行道는 佛道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부처님께 가는 길*

— 念佛要門 —

보조국사 지음

현장스님(대원사) 옮김



요즘 사람들은 그 마음이 흐리고 어두워서 욕망과 삶의 버릇이 짙고 두텁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어둠에 막히고 길이 애욕에 빠져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벗과 같은 스승이나 스승과 같은 벗의 깨우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끝내 괴로움을 벗어난 참 행복을 얻기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난 날 저지른 잘못들을 잘 일깨워 주는 좋은 벗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섯 가지 잘못된 마음의 흐름을 편히 쉬고 행복한 삶을 가로막고 있는 다섯 가지 거침새들을 밝게 안 뒤 다섯 가지 어둡고 흐린 삶을 훌쩍 뛰어넘어 아홉 층 연꽃 세상 위로 둥근 보름달처럼 밝게 떠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여

러분들은 부디 뜻을 모아 내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섯 갈래 잘못된 마음의 흐름을 편히 쉬게 하는 길인 오정심(五停心)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탐심이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나의 몸이 깨끗하지 않음을 보게 함이요, 두 번째는 화 잘 내는 중생들로 하여금 자비로운 삶을 보게 함이요, 세 번째는 마음이 어지러운 중생들로 하여금 들이쉬고 내쉬는 숨길을 보게 함이요, 네 번째는 어리석은 중생들로 하여금 끝없는 인연의 바다를 보게 함이요, 다섯 번째는 살아가는데 거침새가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이름과 모습이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음을 밝게 보게 함이 그것들입니다.

* 이 글을 보내주신 현장스님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잘못된 마음의 흐름이 멈춘다 해도 세상의 인연을 여의지 못하는 이는 다시 다섯 가지 걸림새에 걸리고 맙니다. 다섯 가지 걸림새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애욕이 끊임없이 흐르는 번뇌의 걸림새요, 두 번째는 진리라는 것에 덥석 집착하는 앓의 걸림새요, 세 번째는 몸뚱이를 아끼고 사랑해서 갖가지 업을 지어 만든 과보의 걸림새요, 네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함만을 지키는 이치의 걸림새요, 두 번째는 질리라는 것에 덥석 집착하는 앓의 걸림새요, 세 번째는 몸뚱이를 아끼고 사랑해서 갖가지 업을 지어 만든 과보의 걸림새요 네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함만을 지키는 이치의 걸림새요 다섯 번째는 이런 저런 사물들을 헤아려 따지는 사물의 걸림새가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걸림새들을 밝게 깨닫지 못하면 다섯 가지 어둡고 흐린 삶에 걸려들어 헤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가지 어둡고 흐린 삶인 오탁(五濁)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공(空)과 색(色)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게 되는, 시간의 어두움인 겁탁입니다. 두 번째는 온갖 알음알이가 들고 일어나 맑고 고요한 성품을 어지럽히는, 생각의 어두움인 견탁(見濁)입니다. 세 번째는 어지럽게 그릇된 생각을 일으켜, 앓을 내서 바깥 세계를 지어내는, 번뇌의 어두움인 번뇌탁(煩惱濁)입니다. 네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쉬지 않고 생각 생각에 흐르는, 중생의 어두움인 중생탁(衆生濁)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마다 의식의 시킴을 받으면서도 그 근원을 돌아보지 않는, 목숨의 어두움인 명탁(命

濁)입니다.

이 다섯 가지 잘못된 마음의 흐름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다섯 가지 걸림새를 밝게 알겠습니까. 또 다섯 가지 걸림새를 밝게 알지 못한다면 다섯 가지 어둡고 흐린 삶을 어찌 맑힐 수 있겠습니까. 다섯 가지 잘못된 마음의 흐름을 쉬지 않는 이는 걸림새도 많고 어둡고 흐림 또한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들은 반드시 열 가지 염불 삼매의 힘으로 점차로 청정한 계율의 문에 들어가야 티 없이 깨끗한 삶을 생각 생각마다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된 뒤에야 잘못된 마음의 흐름을 편히 쉬어서 저 다섯 가지 걸림새와 다섯 가지 어둡고 흐린 삶을 훌쩍 뛰어넘어 곧바로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새어나감이 없는 배움인 삼무루학(三無漏學)을 맑게 닦아서 저 아미타부처님의 위없는 큰 깨달음을 함께 증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아미타불의 큰 깨달음을 증득하려면 마땅히 열 가지 염불을 수행(修行)해야 합니다. 열 가지 염불이란 어떤 것입니까. 몸가짐의 염불인 계신염불(戒身念佛), 말가짐의 염불인 계구염불(戒口念佛), 마음가짐의 염불인 계의염불(戒意念佛), 움직이면서 하는 동억염불(動憶念佛), 움직이지 않고 하는 정억염불(靜憶念佛), 말하면서 하는 어지염불(語持念佛), 말하지 않고 하는 묵지염불(默持念佛), 부처님 모습을 그리면서 하는 관상염불(觀想念佛), 무심하게 하는 무심염불(無心念佛), 부처님이 부처님을 염(念)하는 진여염불(眞如念佛)이 그것들입니다. 이 열 가지 염불은 모두 한결같은 참 깨달음의 자리에서 피어나 부처님과

염불에서 말하는 염(念)이란 바로 지킴(守)을 뜻합니다. 참 성품을 늘 드러나게 하고 끝없이 기르려면 그것을 지키어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불에서 말하는 불(佛)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참 마음을 밝게 비춰서, 늘 깨어 있어 어둡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를 이루게 하는, 더할 수 없이 지극한 수행법입니다.

그러므로 염불에서 말하는 염(念)이란 바로 지킴(守)을 뜻합니다. 참 성품을 늘 드러나게 하고 끝없이 기르려면 그것을 지키어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불에서 말하는 불(佛)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참 마음을 밝게 비춰서, 늘 깨어 있어 어둡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무념(無念)으로 밝고 뚜렷하게 깨닫고 이렇듯 밝고 뚜렷하게 깨달으면 온갖 생각이 끊어지니 이것을 일러 참 염불이라 합니다.

열 가지 염불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첫번째는 몸가짐의 염불인 계신염불(戒身念佛)입니다. 죽이고, 훔치고, 음행하는 짓들을 말끔히 없애어 몸을 청정하게 해서 계율의 거울이 밝고 뚜렷해지게 합니다. 그런 뒤로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아서 합장하고 서쪽을 향해 마음 다해 공경히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되, 그 수가 끝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생각 생각에 끊어짐이 없어 마침내 앉아 있음마저 없어져서, 앉아 있지 않을 때도 염(念)하는 일이 한결같이 밝고 분명합니다. 이를 계신염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가짐의 염불인 계구염불(戒口念佛)입니다. 실없는 말, 속이는 말, 두 말, 험한 말

짓들을 말끔히 없애고 입을 지켜 마음을 거둡니다. 몸을 맑히고 입을 깨끗이 한 뒤에 마음 다해 공경히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되 그 수가 끝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생각 생각에 끊어짐이 없어 마침내 입마저 없어져 입으로 부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염(念)하는 일이 밝고 분명합니다. 이를 계구염불이라 합니다.

세번째는 마음가짐의 염불인 계의염불(戒意念佛)입니다. 욕심부리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말끔히 없애고 뜻을 거두고 마음을 맑힙니다. 마음 거울에 번뇌의 때가 사라진 뒤에 마음 다해 깊게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되 그 수가 끝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생각 생각에 끊어짐이 없어 마침내 마음마저 없어져 마음을 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염(念)하는 일이 밝고 분명합니다. 이를 계의염불이라 합니다.

네 번째는 움직이면서 하는 동역염불(動憶念佛)입니다. 열 가지 모질고 나쁜 짓거리를 말끔히 없애고 열 가지 계를 올바르게 지킵니다. 움직이고 오고 감에 한 틈에도 염불하고 찰라에도 염불하여 마음 다해 늘 아미타불을 염(念)하되 그 수가 끝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생각 생각에 끊어짐이 없어 마침내 움직임이 다해서, 움직임이 없을 때에도 스스로 염(念)하는 일이 밝고 분명합니다. 이를 동역염불이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움직임이 없이 하는 정억염불(靜憶念佛)입니다. 저 열 가지 계율이 이미 깨끗해져서, 고요할 때나 일없을 때나 깊은 밤 홀로 있을 때나 염불하는 마음이 한결같아 마음 다해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는 일이 밝고 분명합니다. 이를 정억염불이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하면서 하는 어지염불(語持念佛)입니다. 사람을 맞이해 말을 나누고, 아이를 부르며, 함께 일하고, 일을 시킴에 밖으로는 그런 일들을 따르되 안으로는 염불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고요히 염(念)하되 그 수가 끝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생각 생각에 끊어짐이 없어 마침내 말이 없어져서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스스로 염(念)하는 일이 밝고 분명합니다. 이를 어지염불이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말없이 하는 묵지염불(默持念佛)입니다. 입으로 부르면서 하는 염(念)이 다하고 다해 생각의 때가 없는 염(念)이 됩니다. 자나깨나 어둡지 않으며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늘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되 그 수가 끝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생각 생각에 끊어짐이 없어 끝에 말없음마저 없어져 염(念)하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염(念)하는 일이 밝고 분명합니다. 이를 묵지염불이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리면서 하는 관상염불(觀想念佛)입니다. 저 부처님의 몸이 법계에 가득하며 묘한 광명 눈부신 금빛이 모든 중생들 앞에 두루 나타남을 관합니다. 또 부처님의 맑고 밝은 자비의 광명이 나의 몸과 마음을

비추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이 모두 부처님의 빛임을 밝게 깨달아서,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끝까지 염(念)하되 그 수가 끝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생각 생각에 끊어짐이 없어 하루 내내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늘 삼가고 늘 깨어서 찰나도 어둡지가 않습니다. 이를 관상염불이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무심히 하는 무심염불(無心念佛)입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오래 되어 공을 이루면 차차로 무심삼매(無心三昧)를 얻게 됩니다. 생각의 때가 없는 진실한 염(念)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고 알음알이의 티끌이 없는 참 지혜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뚜렷해집니다. 받음이 없이 받아들이고 함이 없이 다 이룹니다. 이를 무심염불이라 합니다.

열 번째는 부처님이 부처님을 염(念)하는 진여염불(眞如念佛)입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이미 끝머리에 이르러 깨달음이 없이 깨닫습니다. 스스로 심(心), 의(意), 식(識)이 본디 텅 빈 것임을 알아서, 한가지 밝은 성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자람 없는 깨달음의 큰 지혜가 밝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를 진여염불이라 합니다.

염불하는 이치가 이와 같으니, 만약 먼저 열 가지 악(惡)과 저 여덟 가지 행복한 삶의 길인 팔정도(八正道)에 맞서는 여덟 가지 그릇됨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열 가지 계율의 맑고 깨끗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몸이 맑고 깨끗하고 계율의 거울이 환히 밝지 않으면 어떻게 저 열 가지 염불법과 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몸

요즘 욕심투성이인 옳지 않은 무리들이 열 가지 악(惡)과 여덟 가지 그릇됨을 끊지 않고, 또 다섯 가지 계율과 열 가지 착함을 닦지 않고도 그릇된 앎과 혼자만의 생각으로 헛되이 염불수행법을 찾아 그릇된 바람들을 드러내 놓고 극락 세계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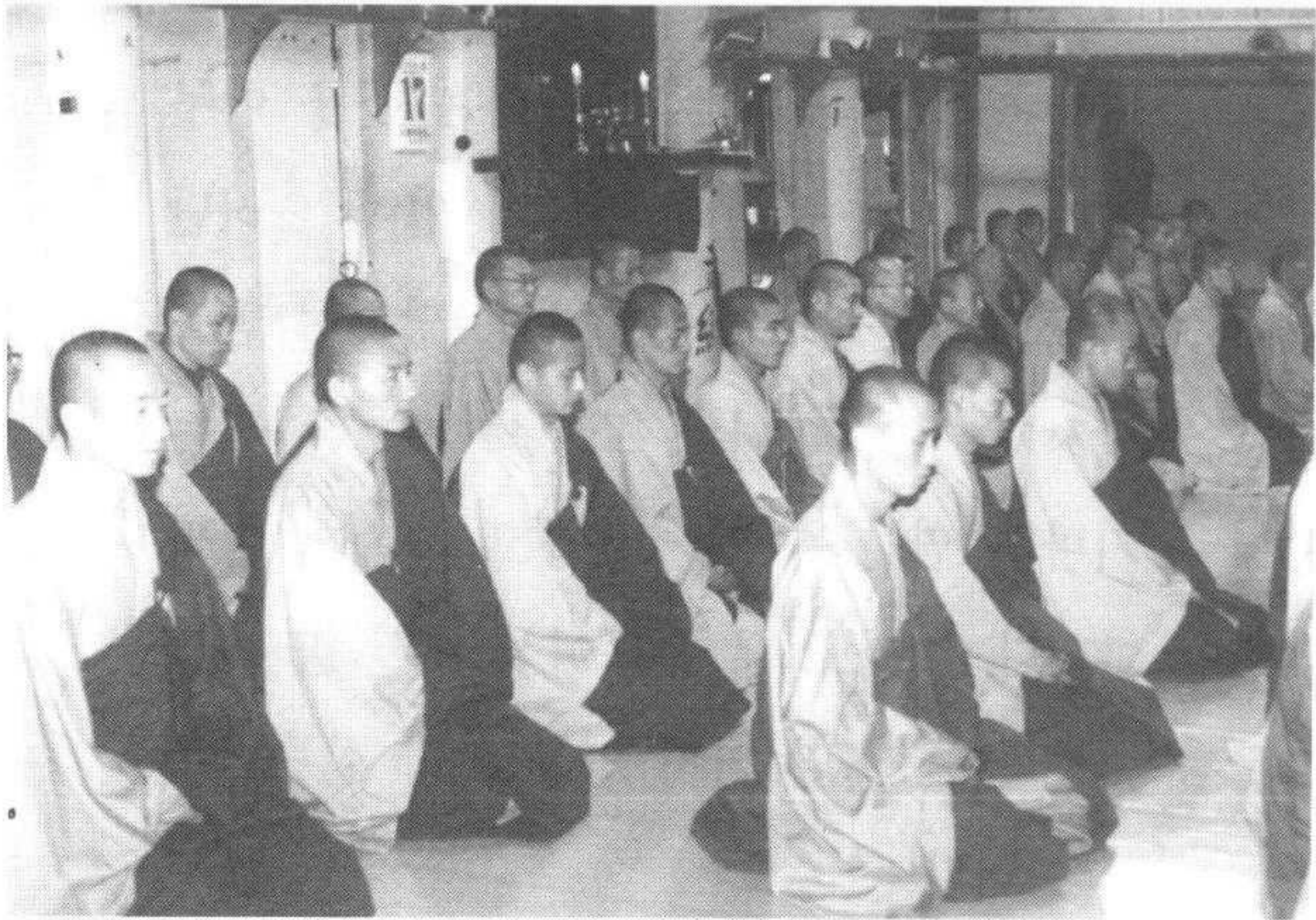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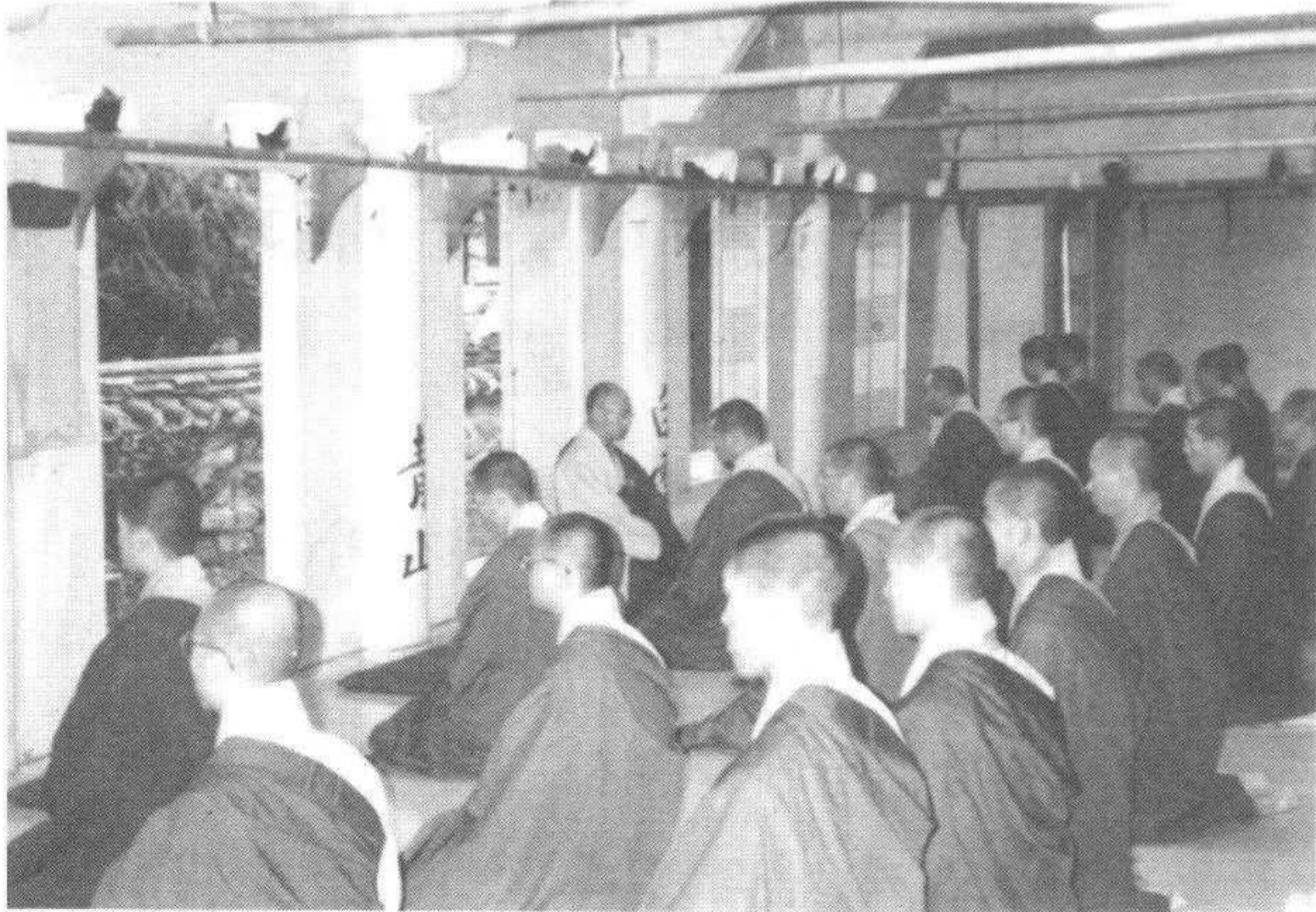
을 맑고 깨끗하게 한 뒤에야 진리의 온갖 보배들을 쌓고 모을 수 있으며, 계율의 거울을 환히 밝게 한 뒤에야 부처님께서 자비의 빛을 드리워 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맛을 지닌 제호를 언더라도 보배 그릇이 아니면 그것을 담아 두기 어렵다.” 그러니 염불하는 수행자가 몸이 청정하고 계율의 거울이 밝고 뚜렷하면 어떻게 진리의 기막힌 맛을 부처님만이 담아 지닐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요즘 욕심투성이인 옳지 않은 무리들이 열 가지 악(惡)과 여덟 가지 그릇됨을 끊지 않고, 또 다섯 가지 계율과 열 가지 착함을 닦지 않고도 그릇된 앎과 혼자만의 생각으로 헛되이 염불수행법을 찾아 그릇된 바람들을 드러내 놓고 극락 세계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난 나무로 둥근 구멍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염불수행을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처님의 뜻이야 어찌 그런 삿된 생각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씬없이 파계(破戒)하는 몸으로 순간 순간 부처님을 비방하면서도 되려 실없이 참되고 깨끗한 세계를 구하는 죄는 참으로 풀어 줄 수 없고 무겁기 그지없는 죄인 것입니다. 죽어 지옥에 떨어져 스스로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이 누구의 허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계율로 벗을 삼고 이제까지 밝힌 이

치를 거울삼아 비춰 보고, 먼저 열 가지 악(惡)과 여덟 가지 그릇됨을 끊고 이어서 다섯 가지 계율과 열 가지 착함을 굳게 지녀서 앞서 저지른 잘못들을 참회하고 깨달음의 열매 얻기를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과 더불어 힘쓰고 애쓰며, 나고 죽음을 벗어나겠다는 뜻을 야무지게 다져야 합니다. 해마다 선악의 업이 드러난 다니 정월, 오월, 구월에 하는 수행을 닦듯이 염불수행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 날씨가 엇바뀌는 여덟 절기마다 염불수행을 새롭고 새롭게 힘써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달마다 여섯 재일(齋日)의 가르침을 본받아 저 열 가지 염불로 참 살림살이를 삼아야 합니다.

오래 공들이고, 있는 힘을 다 모아 저 진여염불(眞如念佛)과 하나를 이루면 날마다 시간마다 가고, 오고, 앓고, 누움에 아미타불의 참 모습이 그 옥이 앞에 나타나셔서 그대 머리 위에 향기로운 손을 얹으시고 길이 길이 피어나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또 목숨을 마칠 때에 이르러서는 아미타부처님께서 몸소 극락 세계의 아홉 층 연꽃 세계로 맞아들이사 반드시 가장 뛰어난 저 아홉 번째 연꽃 세계에서 여러분을 맞으시고 길이길이 그 곳에 머물게 하실 것이니, 아, 부디 애쓰고 또 애쓰십시오.



산철 개강 및 무장무애 기도

9월12일 : 한달간 방학을 마치고 가을 산철 경제에 들어갔습니다. 사흘간 조석에 불 후 큰방에서 무장무애를 기원하는 참회기도를 올렸습니다. 108 대참회문을 읽어 내려가며 절을 하는 스님들의 표정에서 비장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로암에서 울력

9월22일 : 감로암에서 겨울준비를 위한 땀감 나르기 울력을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장작도 대중스님들의 바쁜 움직임엔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추따기 울력

10월9일 : 사중 뒷산 고추밭에서 육주스님과 함께 고추따기 울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햇살이 조금은 따가웠지만 시종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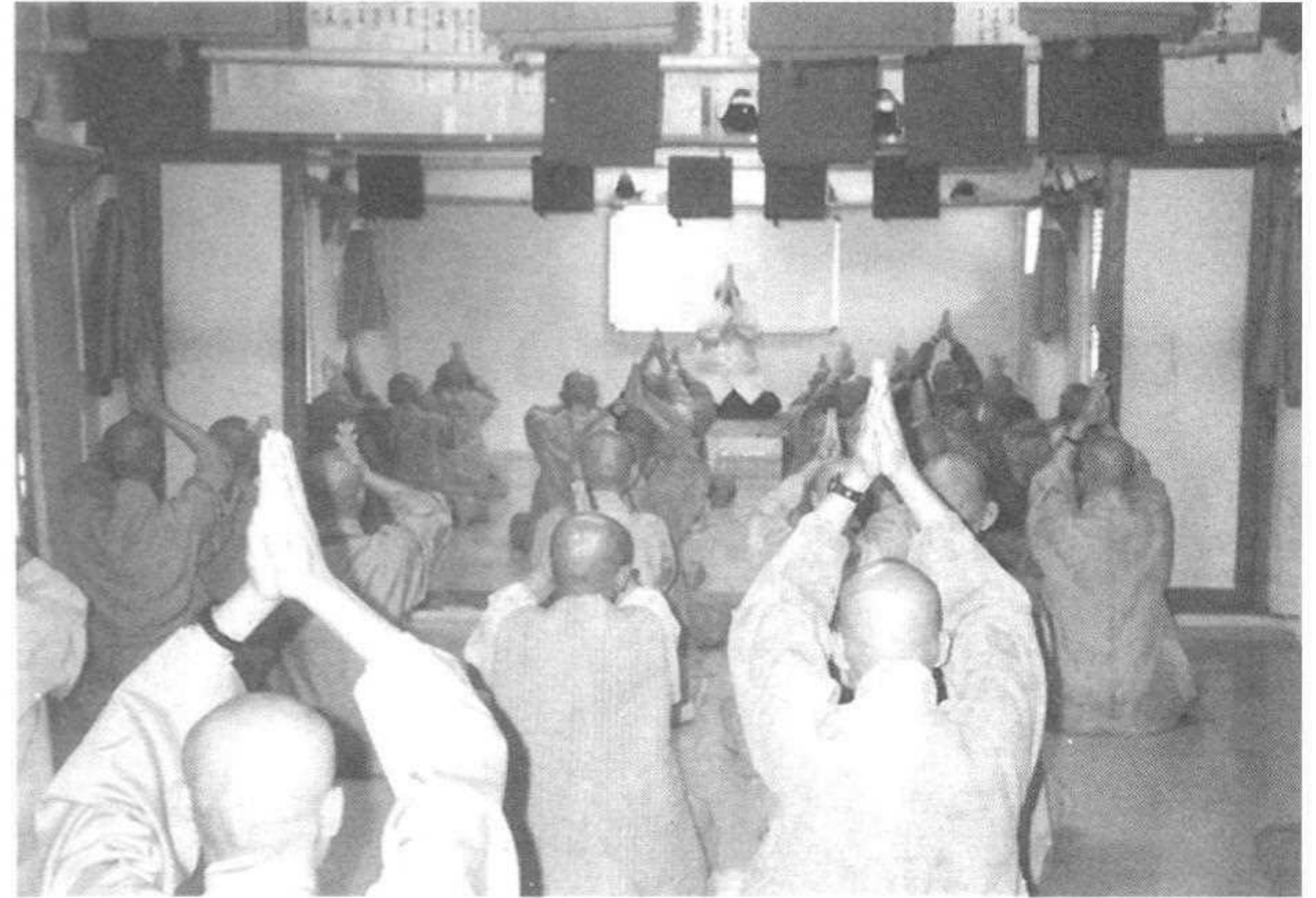


송광사 어린이법회 창립

10월 1일 : 송광사 어린이 법회(지도법사 보철스님)가 훈봉영각에서 80여명의 어린이가 모인 가운데 창립되었습니다. 순천, 광주에서 매주 어린이 법회를 위해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가을 소풍 다녀와

10월 8일 : 송광사 어린이회에서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광주 페럴리 랜드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치문반 스님들이 동참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공과 사찰건축 특강

10월2일 : 특강으로 큰방에서 현장(대원사 주지)스님의 지도로 선체조인 '항공'을 배웠습니다. 먼 길을 오셔서 수고해주신 현장스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3일 ~ : 3일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에 주지스님을 모시고 사찰조형예술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으면서도 쉽게 지나쳤던 건축물과 단청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탁발

10월6일 : 지난 6일에는 송광사 강원대중 전원과 육주스님, 강주스님, 일러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 국제시장에서 2시간 남짓 탁발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연변 도문시에 건립할 한업사 중창 북사 기금마련과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겸한 것으로, 부산 대각사에서 전심공양을 관음사에서 저녁공양을 준비하여주셨으며, 또 관음사 신도님들의 길안내 등의 협조 아래 여법하게 봉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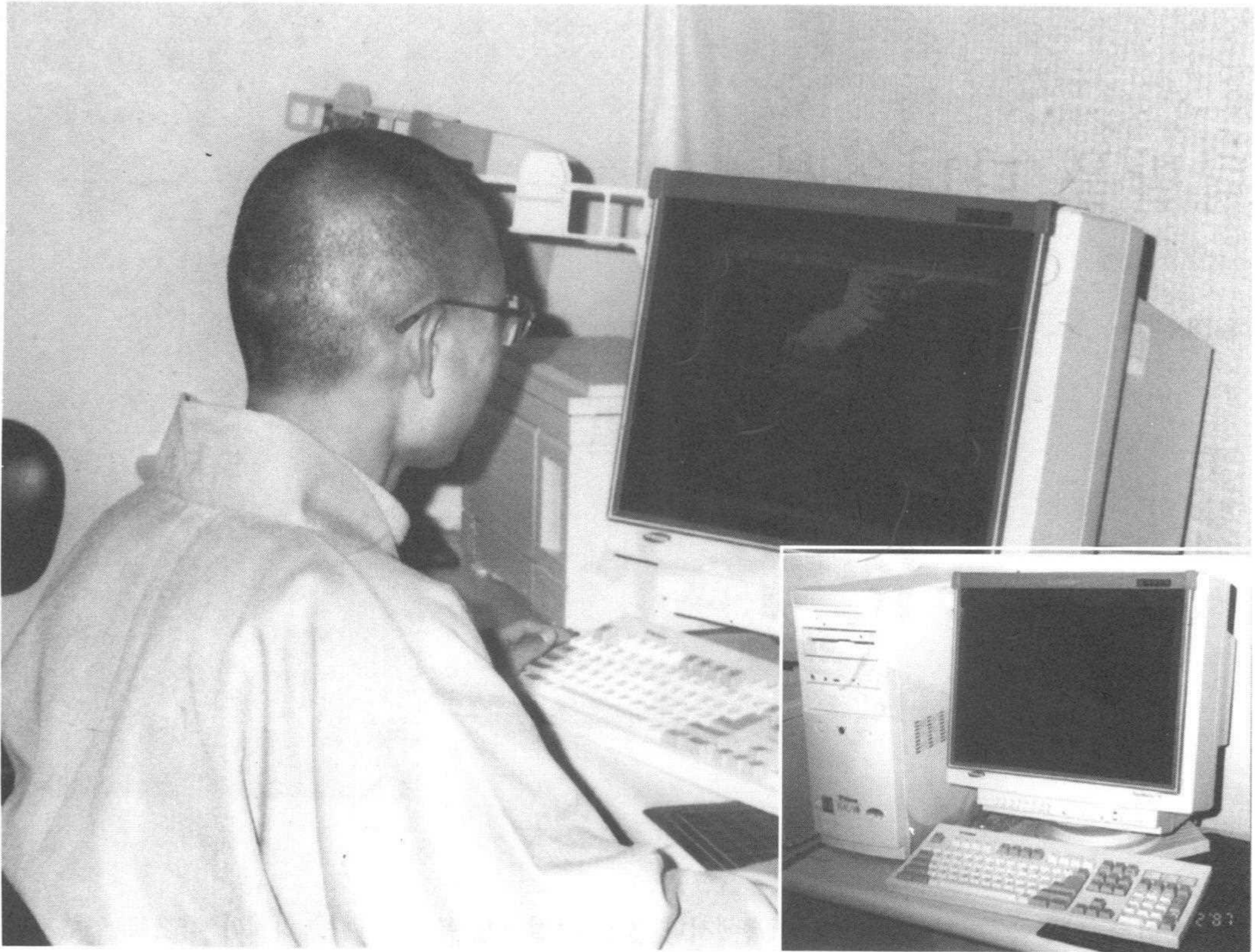


오도암서 체육행사

9월30일 : 오도암에서 체육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종목은 축구와 소프트 볼이었는데 새로 입방한 치문반 스님들이 처음 선보였습니다.

소방훈련

10월16일 : 대웅전 앞마당에서 순천 소방서의 지도로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막일에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화재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훈련 하나하나 열심히 눈여겨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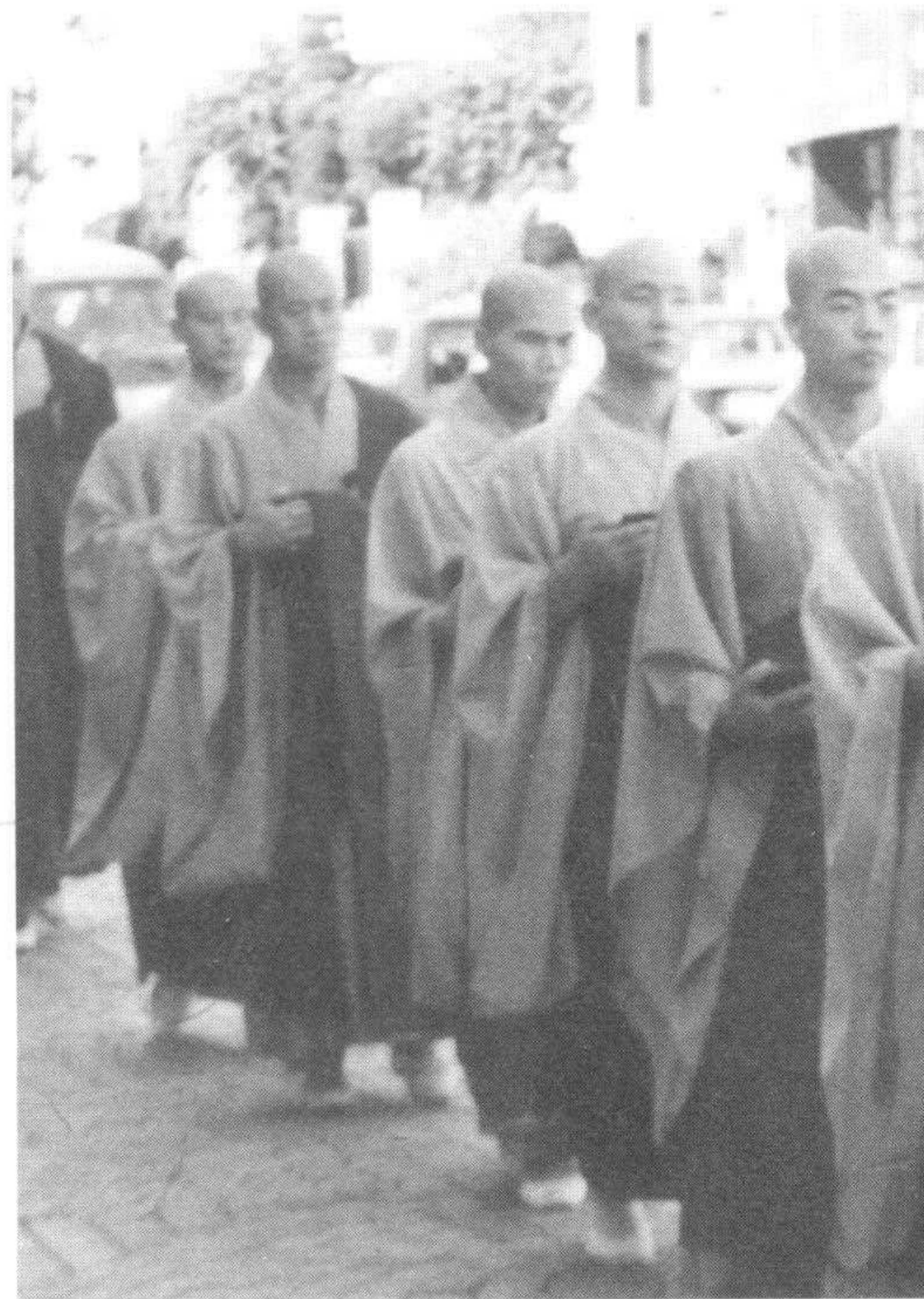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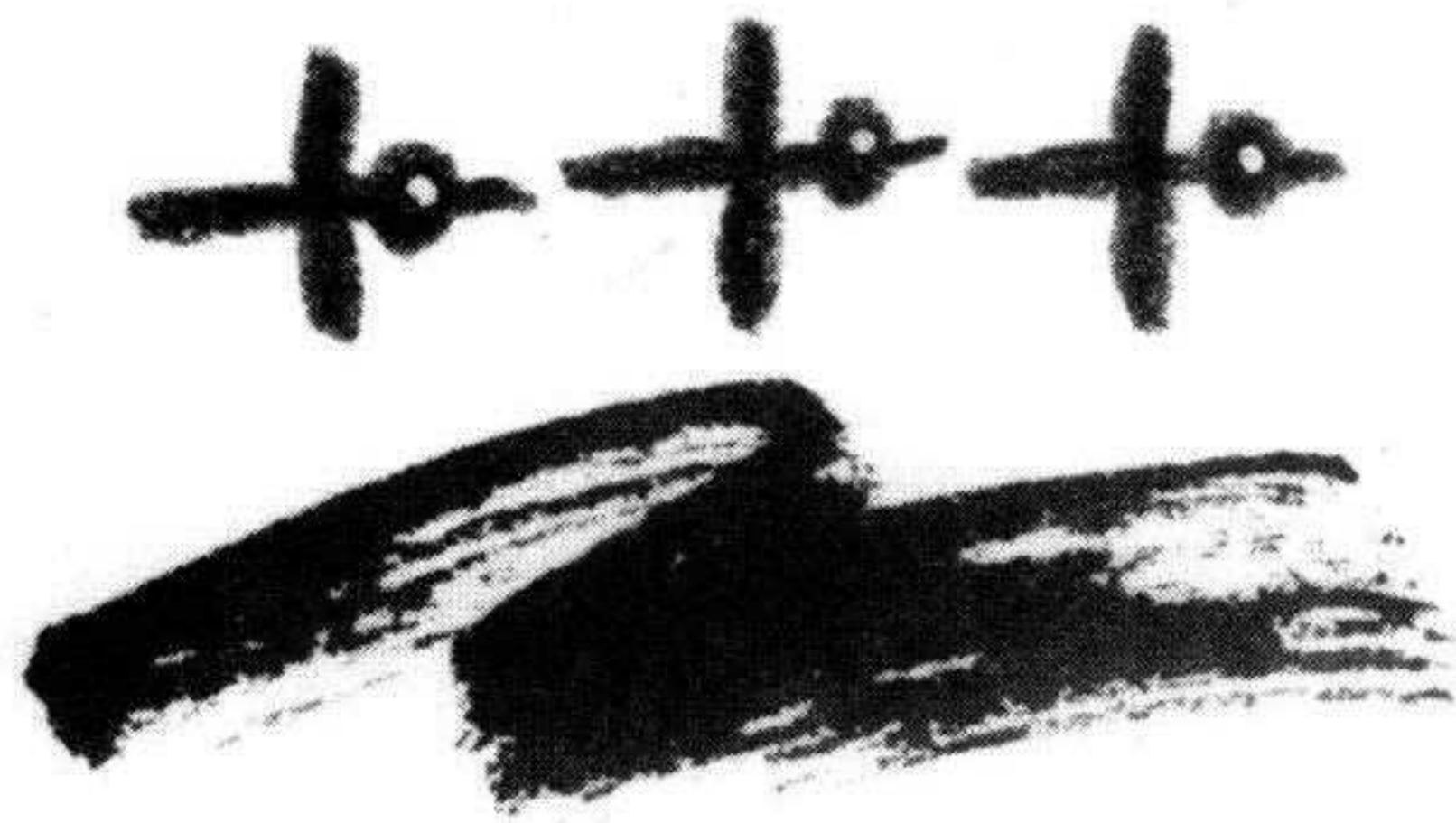
해청당 편집실에 컴퓨터 보시 들어와

익명의 보살님이 해청당 편집실에 컴퓨터 1대를 보시하셨습니다. 강주스님을 통해 전달된 이번 컴퓨터는 펜티엄급으로 해청당 편집, 강원 제반 문서작성 및 컴퓨터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큰 사진은 해청당 작업 중인 편집실의 모습이며, 아래 작은 사진은 이번에 새로 보시받은 컴퓨터)

탁발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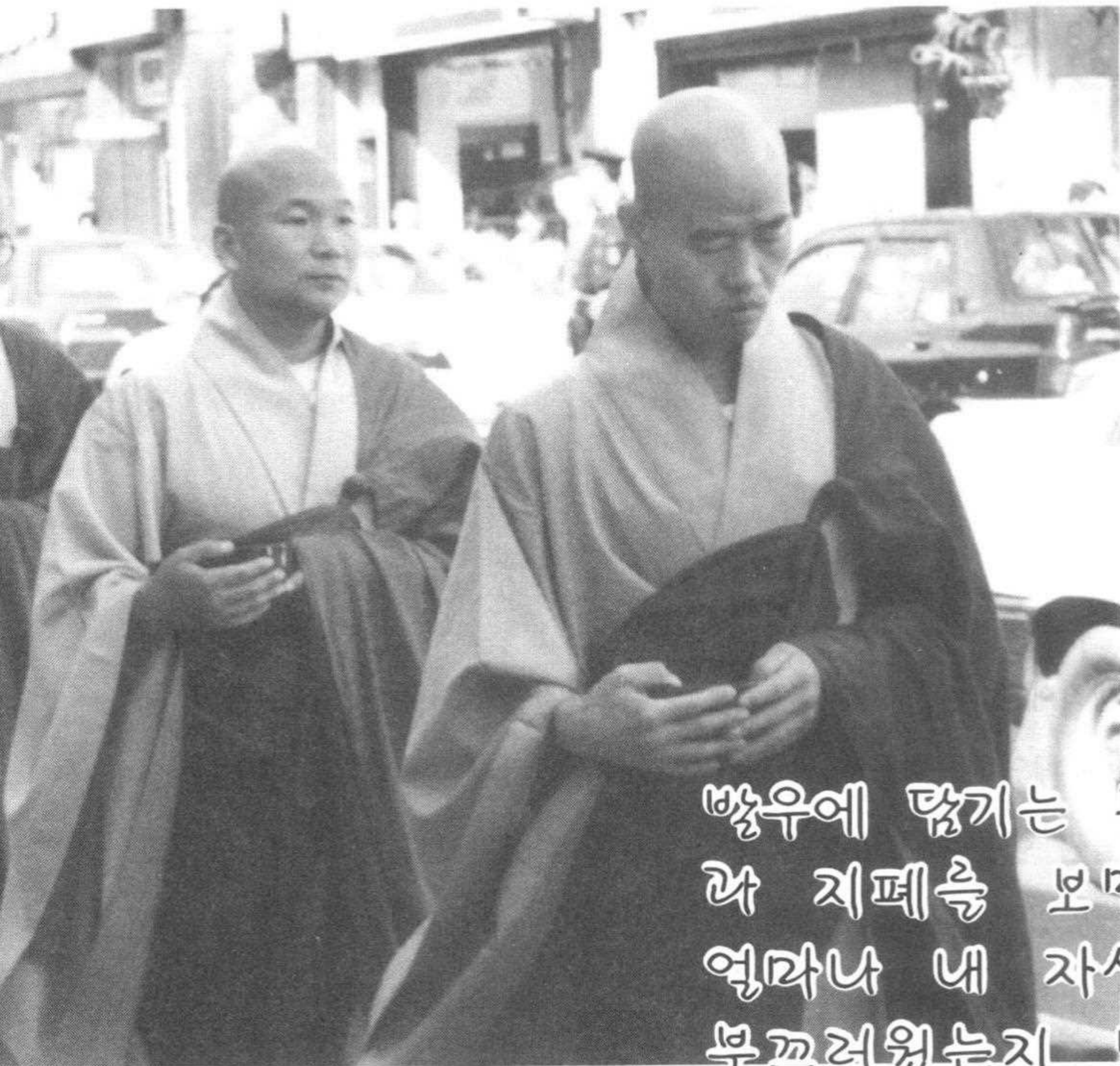
일대/치문



‘수행’이란 낱말을 머리에 떠올리면 흔히들 고행을 연상하곤 한다. 그만큼 수행이 어렵고 괴로운 생활이란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하고 있다. 수행의 뜻을 찾아보았더니 ‘도를 닦는다’ 혹은 ‘불법을 배우다’로 되어 있었다.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가는 모든 스님네의 생활이라는 것이 첫출발 자체, 다시 말해서 출가부터가 수행이 아닐까 싶다. 살아온 날들을 뒤로하고 현재의 살아가는 모습속에서 진리를 체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

다. 책속에서나 경전 구절에서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께서 직접 체득하신 바나 깨달으신 바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늘 배우고 좋은 경귀를 대하며 오히려 타성에 젖어서 그 뜻을 올바르게 새기지 못하였던 것 같다. 아니면 글자 한자 한자에 매여서 흡사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 길이 진리의 길임을 확신하고 들어섰지만, 무엇하나 걸리지 않음이 없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살

려는 의지와 각오로 임했지만, 어느새 뜻은 저만치 달아나고 빈껍데기와 초라한 모습뿐이었다. 여러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모나지 않게 살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요즈음 들어서는 더욱 요원해 보이고 쉽지만은 않게 느껴진다. 이런 고민에 빠져있을 때 마침 탁발이란 행사를 하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삼십 년 전만 하더라도 탁발이 성행했었다. 그러나 생활이 향상되고 먹고 살만해지자, 승가의 생활 방



발우에 담기는 동전과 지폐를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이 공양을 받으면서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였던가. 그 이전으로 소급해서 출가하기 전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절절한 반성을 해보았다.

편이자 문화의 하나인 탁발도 법으로 금해졌다. 탁발이 승려의 위와 체면에 손상을 주어서인지, 아니면 탁발을 하지 않아도 시주물이 들어와서인지, 탁발의 폐단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서 인지, 그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 남방에서는 끼니때마다 탁발을 해서 스님들의 생활에 필요한 상주물을 공양받는다고 들었다. 남방의 탁발 장면을 비디오로 본 적이 있는데, 가사를 수하고 발우를 옆에 끼고 일렬로 행진해 가면 신도들이 나와서 공

양물을 정성껏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였다. 이번에 다녀온 탁발 행사는 강원 전대중이 참여하였다. 여러 대중이 가사 장삼을

입고 발우를 옆에 끼고 묵묵히 저자거리를 걷는 모습은 그야말로 근래에 보기 드문 수행자의 행렬이 아니던가. 발우에 담기는 동전과 지폐를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이 공양을 받으면서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였던가. 그 이전으로 소급해서 출가하기 전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절절한 반성을 해보았다. 스님들이 지나가면 외경스러워야 했지만, 이처럼 탁발하러 나온 스님들에게 보시하는데는 인색했던 기억이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스님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시하는 데 인색한 마음이 짐을 가졌던 것 같다. 이미 출가할 때 무소유로 살겠다고 다짐했던만 인색한 마음은 떨쳐버리지 못했음이라. 몸은 출가하고 마음은 출가하지 못했음인가 보다. 시주하시는 분은 한마음 돌이켜 복락과 열반락을 얻고, 시주 받는 자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경책하여 수행에 힘쓰고, 시주물은 좋은 곳에 쓰여 법을 전하므로 삼륜이 깨끗하고 밝음을 여기서 보았음이라.

월요일 아침



념혜/치문

월요일 아침 어머니는 아침 상을 차려주시며 말없이 옆에 앉으셨다.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이것이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밥상이 되겠지, 아니 어쩌면 어머니에 대한 나의 마지막 효도일지도 모

른다는 생각에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을 꼭 참았지만 벌써 뺨을 타고내려 턱끝에 맺혀 있었다. 어머니 모르게 손끝으로 훔쳤다.

간밤에 나눈 얘기들이 입에 넣은 밥알처럼 한번 씹을 때마다 얇

은 껍질 속에 든 것처럼 하나 둘 터져 나왔다. 어머니도 수없이 생각을 하셨나보다. 밤새 더 수축해 보였다.

“난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이나?”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

안방에선 아침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무 것도 모르신 채 출근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 큰소리로 떠들고 있는 간밤의 뉴스보다 더 큰 충격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수저를 놓고 방에 가서 미리 준비 - 준비라 해봤자 속옷 한 벌- 해 둔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다.

어머니께서 문 앞에 기다리고 계셨다.



“정말 갈 거냐?”
 “어머니 애착을 가지면 안됩니다.”
 “.....”

대문을 나서면서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아버지에게 학교 갔다 오겠다고 무심히 인사를 했다. 웬일일까? 보통때 같으면 ‘그래’ 단 한마디뿐인데 오늘따라 창문을 여시며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 온다.’ 라고 덧붙이셨다. 아들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예감을 느끼신걸까? ‘예, 알겠습니다.’ 골목길을 벗어나면서 ‘아버지 어찌면 오늘 일찍 못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 들어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소리 없는 대답이 입속에 맴돌 뿐이었다.

어떻게 버스에 올랐고 어떻게 송광사에 도착했는지 기억은 없지만 버스 안에서 되뇌었던 어머니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정말로 출가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리고 송광사로 가거라. 스님이 되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승복을 벗을 생각을 말그라.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스님이 되어 불쌍한 사람 많이 돕고 법문 많이 하그라.”

“예.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말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경상에 앉아 까칠까칠한 머리를 만지면서 그때 월요일 아침을 생각하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대답한

‘애착을 가지면 안됩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을까? 애착이라는 말로 모정을 너무나 쉽게 끊어 버렸으니, 또한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대자비를 배우고 불보살님들의 한량없는 서원을 따라야 할 지금, 쉽게 모정마저도 끊어버린 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애착을 아직도 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돌아오는 월요일에 속가의 부모님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 당신의 아들을 보러 오신다고 한다. 월요일 아침에 일주문을 깨끗이 쓸어야겠다.

약 왕 단

본 제품은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인체내 깊숙이 흡수되도록 함으로서 체내에서 열반응을 일으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케 하며 세포조직의 부활을 도와줍니다. 본 제품은 수행정진하시는 많은 스님들이 써보시고 그 효험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계십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불자님들을 위해 판매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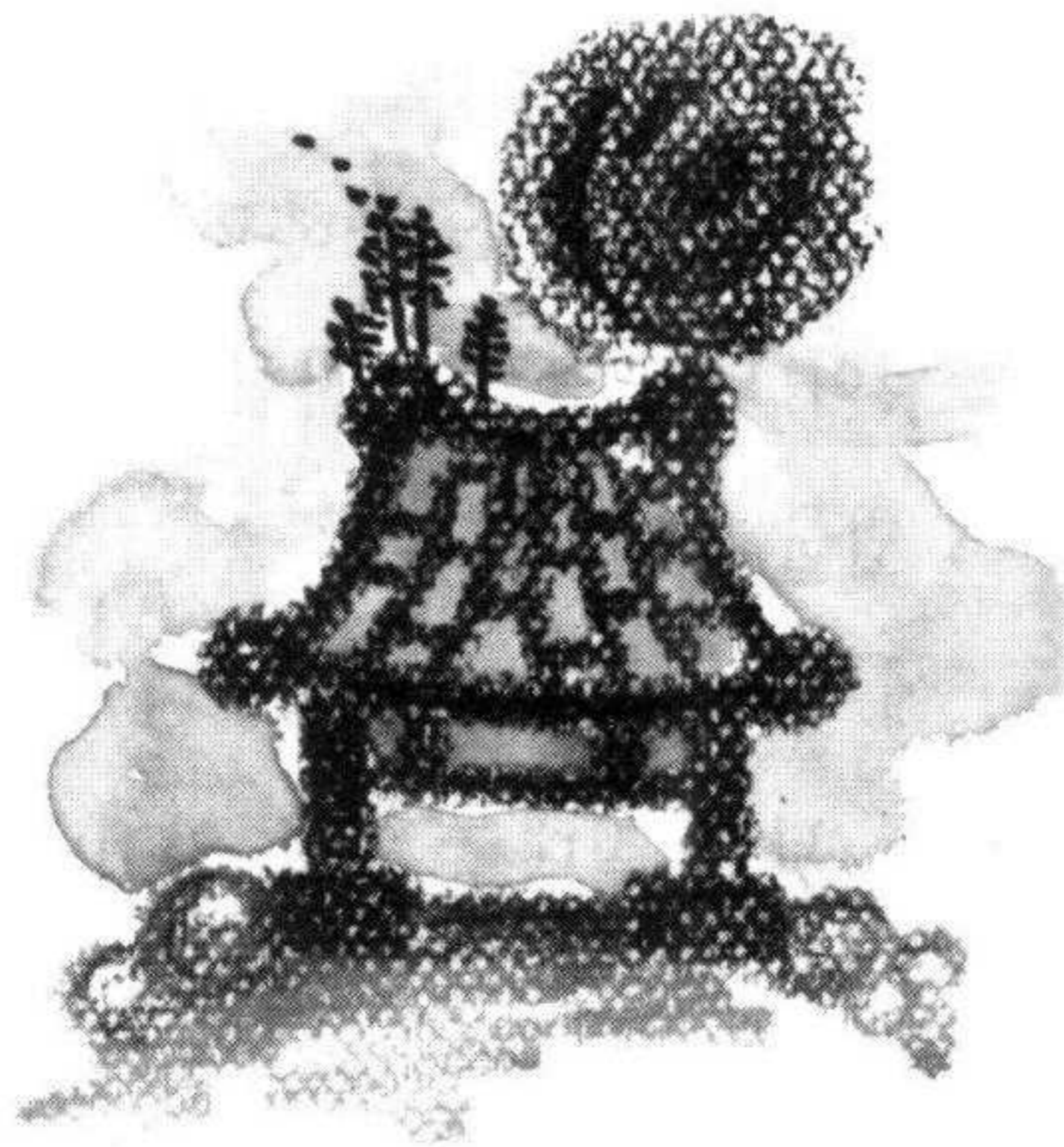
제품사양 : 방석 · 요 · 베개(크기 조절가능)
 문 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산20번지
 0416) 856 - 0652

걸망을 진 뜻중이
걸고 있다. 어디
선가 많이 본듯한 모
습!

그것은 내 기억속
사진의 모습이었다. 그
스님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일주문을 지나
산사로 들어서고 있다.
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돌맹이
하나까지 골동품인 듯
한 그런 산사에 들어
서고 있다. 화려하나
천박하지 않고 현란하
지 않은 단청과 대비된 잿빛 기와
장이 눈부신 곳! 소박한 채송화와
백일홍, 정적 속에 간간이 들리는
스님들 간경소리, 그리고 느릿느
릿 걷는 스님의 뒷모습. 그러나
송광사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 더
많은 매력을 품고 있었다. 흙담을
덮은 담쟁이와 바위솔, 소리 없이
흐르는 시냇물과 푸른 이끼들, 색
바랜 단청은 한없는 시간들을 품
고있는 듯하다. 더욱이 출가해서
수행하는 구도자들이 부처가 되
려고 모여 사는 곳! 이곳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는
다. 언제나 넘볼 수 없는 길이라

7일간의 휴가

도움/치문



여겼던 수행자의 길! 특별한 사람
들만이 가는 길이라 생각했고 그
들은 분명 전생에 많은 복을 지었
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토록
꿈꾸었던 수행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 가사 수하
고 사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수많
은 큰스님들이 공부했던 그 송광
사에 학인이 되려고 와있다는 것
이 마치 꿈을 꾸는 듯하다. 일주
일을 객실에서 지내면서 근처 암
자에 틈틈이 포행을 다녀왔다. 시
골집을 연상시키는 광원암과 불
일암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사진
속의 주인공처럼 잔뜩 품을 잡고

승복을 휘날리며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다. 이
정도면 일주일 간의
객실 생활은 성공적이
라 생각한다. 일주일
간의 대기는 대기가
아닌 특별히 주어진
휴가였다. 해청당을 구
경꾼으로 볼 수 있어
서 좋고, 마음놓고 책
도 보고 예불과 공양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좋았다. 멀리
큰방이 보인다. 오고가

는 스님들 모습, 그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
다. 발우가 놓여 있는 선반, 나란
히 걸려 있는 가사, 장삼, 그런 모
습들이 연상되긴 하지만 정확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없었다. 이제
그곳의 주인공으로 사년을 살아
야 한다. 중이 무얼 하는지도 모
르면서 출가해서 이곳 송광사 강
원까지 왔다. 오늘은 입방하는 날
이다. 같이 입방하기로 한 스님
들과 큰방에 들어선다. 대중 스님
들게 삼배를 올리고 나는 오늘로
송광사 강원의 정식 학인이 되었
다.

고향 소식

정륜/치문

따로이 서 있는 석류열매들
때가 되면 익으리
한때의 소슬바람
외롭다 여길 것인가!

삼라의 움직임
모두가 고향 소식
길 가는 이 아미타불
탄탄대로 밝음이여!

형편대로 물든 낙엽
가을을 굴러가니
형형색색 제각기
곶기도 하여라

떠나는 흰 구름
앞산을 넘나드니
길 가는 이 아미타불
표정 없는 미소여!

영명지각연수선사수계

- 永明智覺壽禪師垂誠 -

출전 : 치문

역 : 보철/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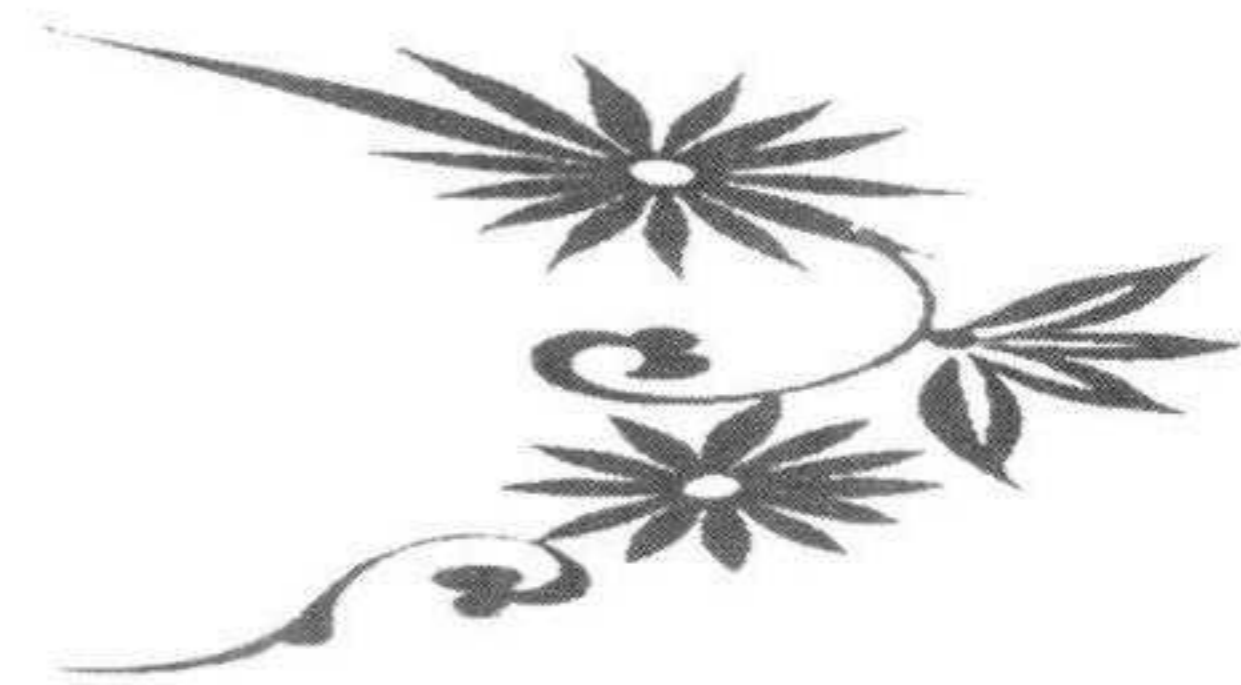
學道之門別無奇特只要洗滌根塵下無量劫來業識種汝等子但能消除情念斷絕妄緣對世間一切愛欲境界心如木石相似直饒未明道眼自然成就淨身若逢真正導師切須勤心親近假使參而未徹學而未成歷在耳根永爲道種世世不落惡趣生生不失人身纔出頭來一聞千悟須信道眞善知識爲人中最大因緣能化衆生得見佛性深嗟末世誑說一禪只學虛頭全無實解步步行有口口談空自不責業力所牽更教人撥無因果便說飲酒食肉不礙菩提行媠行媠無妨般若生遭王法死陷阿鼻受得地獄業消又入畜生餓鬼百千萬劫無有出期除非一念回光立即翻邪爲正若不自懺自悔自度自修諸佛出來也無救爾處若割心肝如木石相似便可食肉若喫酒如喫屎尿相似便可飲酒若見端正男女如死尸相似便可行媠若見己財他財如糞土相似便可侵盜饒爾鍊得到此田地亦未可順汝意在直待證無量聖身始可行世間逆順事古聖施設豈有他心只爲末法僧尼少持禁戒恐賺他向善俗子多退道心所以廣行遮護千經所說萬論所陳若不去媠斷一切清淨種若不去酒斷一切智慧種若不去盜斷一切福德種若不去肉斷一切慈悲種三世諸佛同口敷宣天下禪宗一音演暢如何後學略不聽從自毀正因反行魔說只爲宿熏業種生遇邪師善力易消惡根難拔豈不見古聖道見一魔事如萬箭攢心聞一魔聲如千錐筍耳速須遠離不可見聞各自究心慎莫容易

도 를 닦는다는 것은 달리 특별할 것이 없다. 단지 육근과 육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한량없는 세월 동안 축적된 업식 종자를 깨끗이 씻어 버리기만 하면 되니, 너희들은 조건지어진 주체와 객체의 공함을 알라. 세상의 모든 애욕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의 상태가 마치 나무와 돌과 같이 부동하게 한다면, 가령 도를 관하는 안목이 밝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청정한 몸을 얻

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 참다운 진리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가까이 하라. 만약 참구하여 깨닫지 못하고 정진하여 이루지 못하더라도 잠시 쉼전에 스친 인연으로 영원한 도의 씨앗이 되어 악도에 떨어지거나 사람의 몸을 잃는 일이 없게 되며, 세상에 태어나게 된 뒤에도 하나를 들으면 천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부디 명심하라. 진정한 선지식은 인간 세

상에서 가장 큰 인연이 되니, 중생을 제도하여 불성을 보게 하나니라. 아! 심히 슬프구나, 말세에 빈말 잘하는 한 선객이 헛된 것만 배워 온전한 실상의 모습에 관한 이해없이 순간 순간 업만을 짓고, 입으로는 공을 떠들며, 자신은 업에 끌려 다니는걸 꾸짖지도 않고, 게다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무시하게 하여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것은 보리에 장애가 되지 않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것은 반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살아서는 세상의 법에 심판을 받고 죽어서는 아비 지옥에 떨어지며, 또 과보를 받은 지옥의 업이 다하였어도 또 다시 축생계와 아귀계에 태어나며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기약이 없다. 그러나 존재의 본질을 각성하게 된다면 곧 식이 전환되어 지혜가 되니, 만약 스스로 참회하거나 뉘우쳐 헤아려 닦지 아니하면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더라도 너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만약 심장과 간을 오려 내되 마치 나무와 돌과 같이 여긴다면 고기를 먹을 것이며, 술을 마시되 똥, 오줌과 같이 여긴다면 술을 마실 것이며, 단정한 남녀를 보되 죽은 송장과 같이 여긴다면 음행할 것이며, 나의 재물과 다른 이의 재물을 보되 썩은 흙과 같이 여긴다면 침범하여 도둑질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네가 수행하여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며, 무량 성신을 증득해야만 비로소 세상에 역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옛 성인이 말씀하신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느냐? 다만 말법의 승려가 금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

고 착한 속인의 도심을 잃어버리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많은 경전과 논서에서 말하고 또 말하여 널리 막고 보호하는 것이다. 만약 음행을 금하지 않으면, 일체 청정한 종자가 끊어지게 되고, 술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면 일체 지혜 종자가 끊어지게 되며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일체 복덕의 종자가 끊어지게 되며, 고기 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일체 자비 종자가 끊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바며 온 세상의 선종에서 거듭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학은 어찌하여 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깨칠 생각은 하지 않고 마구니의 말만을 행하는 것인가? 오랜 세월 동안 훈습된 업의 씨앗이 원인이 되어 태어나서는 샷된 스승을 만나게 되니 선의 힘의 쉬이 사라지고, 악의 뿌리는 뽑아 버리기가 힘들게 된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마구니의 일을 하나라도 보게 되면 마치 만 개의 화살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이 여기고, 마구니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듣게 된다면 천개의 송곳으로 귀를 찌르는 것과 같이 여기라 하셨음을 어찌 듣지 못했는가? 속히 마구니의 권속에서 벗어나 샷된 것은 보거나 듣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궁구하되 절대 용이심을 내지 말라.



왕내한에게 답하는 글

출전 : 서장

역 : 도선/사집

伏承杜門息交世事一切闊略唯朝夕以某向所學話頭提撕甚善甚善既辦此心當以悟爲則若自生退屈謂根性陋劣更求入頭處正是含元殿裡問長安在甚處爾正提撕時是阿誰能知根性陋劣底又是阿誰求入頭處底又是阿誰妙喜不避口業分明爲居士說破只是箇汪彦章更無兩箇只有一箇汪彦章更那裡得箇提撕底知根性陋劣底求入頭處底來當知皆是汪彦章影子並不干佗汪彦章事若是眞箇汪彦章根性不必陋劣必不求入頭處但只信得自家主人公及並不消得許多勞攘昔有僧問仰山禪宗頓悟畢竟入門的意如何山曰此意極難若是祖宗門下上根上智一聞千悟得大總持此根人難得其有根微智劣所以古德道若不安禪靜慮到庶裡總須茫然僧曰除此格外還別有方便令學人得入也無山曰別有別無令汝心不安我今問汝汝是甚處人曰幽州人山曰汝還思彼處否曰常思山曰彼處樓臺林苑人馬駢闐汝返思思底還有許多般也無曰某甲到遮裡一切不見有山曰汝解猶在境信位卽是人位卽不是妙喜已是老婆心切須著更下箇注脚人位卽是汪彦章信位卽是知根性陋劣求入頭處底若於正提撕話頭時返思能提撕底還是汪彦章否到遮裡間不容髮若佇思停機則被影子惑矣請快著精彩不可忽不可忽記得前書中嘗寫去得息心且息心已過去底事或善或惡或逆或順都莫理會現在事得省便省一刀兩段不要遲疑未來事自然不相續矣不識曾如此覷捕否遮箇便是第一省力做工夫處也至禱至禱

편 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바깥출입을 삼가고 사람들과 만남을 줄이면서 세상일은 모두 간략히 하고 오직 아침저녁으로 내가 지난번에 제시해 준 화두를 가지고 공부한다 하니 매우 훌륭하고 일입니다. 이미 이 마음을 밝히고자 한다면 마땅히 깨달음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퇴굴심을 내어 「근성이 둔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다시 깨달음에 드는 방

법을 찾고자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함원전 안에서 장안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참구하고 있는 그 순간은 누구입니까? 능히 근성이 둔함을 아는 것은 누구이며,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누구입니까? 묘희가 구업(口業)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당신을 위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 사람의 왕언장이지 달리 두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한사람의 왕언장이 있을 뿐이거늘 다시 어느 곳에서 참구하는 사람과 근성이 우둔함을 아는 사람과 다시 깨달음에 드는 방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얻겠습니까? 모두 왕언장의 그림자일뿐 본분의 왕언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진실한 왕언장이라면 근성이 반드시 우둔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다시 깨달음에 드는 방법을 찾지도 아니할 것이니 다만 확실히 자기의 주인공임을 믿는다면 허다한 수고로움에 자신의 힘을 소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양산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종에서는 담박에 깨닫는다고 하는데 구경(究竟)의 문에 들어가는 뜻은 어떠합니까?」 양산스님은 「이 이치는 지극히 어렵다 만약 조종의 문하에 근기가 수승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를 들으면 모든 것을 깨달아 큰 지혜를 얻겠지만 이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우니 그것은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얇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고득이 말씀하시되 만일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선을 하지 않으면 본분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모두 아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이 격외(格外)도리 이외에 따로 배우는 이들이 깨달음에 들어가는 방편은 없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양산이 말했습니다. 「따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면 오히려 자네의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지금 자네에게 묻겠네.」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유주(幽州)사람입니다.」라고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양산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여전히 고향을 생각하는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양산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고향

의 높은 누각과 동산과 정원에는 사람과 말들로 매우 복잡한데 그대는 돌이켜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아직도 허다한 것들이 있는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본분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양산은 「자네의 수준은 아직도 경계에 머물러 있네. 신위(信位)는 맞지만 인위(人位)는 맞지 않네.」라고 말했습니다. 묘희는 노파심이 간절한지라 다시 이 문답에 주석을 덧붙이겠습니다. 인위는 곧 왕언장이요, 신위는 근성이 둔함을 알아서 깨달음에 드는 방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두를 참구하고 있을 때에는 능히 참구하는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 왕언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분자리에 이르러서는 털끝만큼의 차이도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생각을 가다듬고 근기에 맞추려고 한다면 곧 그림자에 미혹됨을 입을 것입니다. 부탁하건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히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건대, 앞전의 편지에 써 보낸 내용과 같이 「마음을 쉬고 또 마음을 쉬어라 라고 말한 것은 과거의 일들이 선이든 악이든 혹은 역경계나 순경계이건간에 모두 알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일도 간략히 하고 또 간략히 해서 일도양단하여 머뭇거리지 아니한다면 미래의 일은 자연히 상속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지못하겠군요, 이와 같이 늘 생각을 가다듬고 있는자…」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일 힘을 덜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니 부디 지극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빕니다.

팔령사 동재에서 자고 이경상에게 차운함

- 宿八嶺寺東齋 次李敬尙韻 回文* -

출전 : 무의자시집

역 : 회일/사교

境奇聞已久
愧不早來尋
靜室開窓眼
歸帆點海心

경계가 기이함을 들은지 이미 오래데
부끄럽게도 일찍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방 창을 여니
돌아가는 배는 바다 가운데 점찍습니다

迥岑青簇簇
寒竹翠林林
永日終歡笑
幸多朋 합簪

먼 산봉우리 푸르게 많기도 하고
한죽은 비취빛으로 어우러졌습니다.
긴 낮 다하도록 즐거이 웃고
다행히 많은 벗이 모였습니다.

境幽乘逸興
是處遍搜尋
靜院憐無事
高庵可豁心

경계 그윽해 세상 벗어난 흥취 오르니
이곳을 두루 찾습니다
고요한 뜰은 일없음을 좋아하고
높은 암자는 가히 마음을 넓혀줍니다

迥雲磨絕壁
啼鳥隱深林
永味眞眞味
幸爲離緩簪

먼 구름 절벽을 스치고
지저귀는 새는 깊은 숲에 숨었습니다
한결같은 맛이 진실로 참맛이라
다행히 느리고 급함을 여의었습니다.

* 回文詩는 앞으로도 새기고 뒤로도 새길 수 있는 詩로서, 무의자시집에는 또 四時有感 回文이란 시가 있다.

心海點帆歸
眼窓開室靜
尋來早不愧
久已聞奇境

마음바다에 점찍은 배 돌아오고
눈의 창을 여니 방이 고요합니다
일찍 찾아온 것 부끄럽지 않고
오래 전에 기특한 경계 들었습니다

簪합朋多幸
笑歡終日永
林林翠竹寒
簇簇青岑迥

빨리 모인 벗들 다행히
웃고 즐기기 종일토록 계속합니다
어우러진 비취빛 대나무 차고
떼지은 푸른 산봉우리 아득합니다

心豁可庵高
事無憐院靜
尋搜遍處是
興逸乘幽境

마음은 넓어 암자만큼이나 높고
일없이 뜰이 고요함을 좋아합니다.
가서 찾은 곳곳이
흥취 빼어나 그윽한 경계에 오릅니다.

簪緩離爲幸
味眞眞味永
林深隱鳥啼
壁絕磨雲迥

급하고 느림을 여윈 것 다행하고
맛은 진실로 참맛이 오래갑니다
숲은 깊어 새울음 숨기고
벽은 끊어져 스치는 구름 멀어집니다

如來藏思想이란 무엇인가

蓮海/四教

一. 序言

‘如來藏思想이란 비록 衆生이 煩惱 즉, 客塵에 속박되어 있으나 如來藏¹⁾ - 즉 부처의 胎, 種子, 性, 可能性-을 본래 갖추고 있는 故로 여래가 될 수 있다.’ 라는 命題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소위 如來藏思想이다.

이 如來藏思想은 우선 우리 衆生들에게 成佛할 수 있다는 信念을 심어줌과 동시에 衆生世間の 存在樣相을 說明하고 實踐修行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매우 중요한 大乘哲學思想인 것이다. 즉 一切衆生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如來藏을 모든 法 즉 生死에서 열반의 根本實相으로써 證得해야 할 究竟目的으로 삼으며 그를 證得해야 ‘바르게 산다’(解脫, 涅槃)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여래장의 선언은 우리 중생에 비로소 解脫涅槃의 희망과 확신을 주는 佛, 菩薩, 慈悲의 결정인 것이다.

二. 如來藏 存在의 論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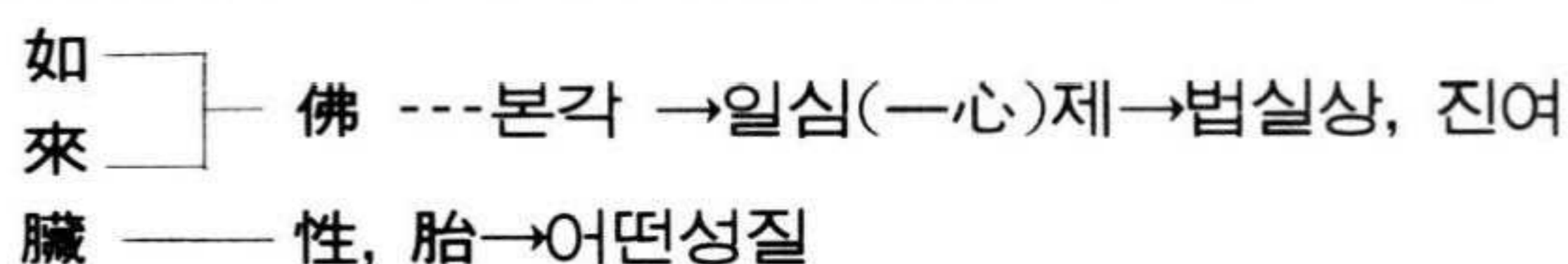
如來藏(佛性)이라는 동일한 문제, 즉 本性을 顯現치 못하고 왜 煩惱妄想의 拘縛凡夫로 남아 있는가?

왜 煩惱는 일어났으며 그 根據는 무엇인가? 하는 問題를 놓고 인도불교사상사에 두 가지 樣相이 나타난다. 唯識系統에서는 自性清淨에 도취되거나 讚美하는 현실 문제를 論하고 그 原因을 찾는 동시에 인간 現實心の 정체(唯識無境)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까닭에 표면상으로는 如來藏心說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다. 唯識의 實性は 眞如라고 간단히 모든 妄의 근저에 眞如性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眞如性을 전연 不動(不生不滅)하는 것으로 妄과는 교섭치 않는다고 하여 二元的 立場을 취한다. 따라서 異執世間이란 識에 갈무리 되어 있는 種子의 현현일 뿐 眞如 그 자체의 緣起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달관하면 자연 초극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本質인 清淨心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妄染緣起만을 주로 다루고 眞如是 不可思議하다 하여 뒤로 미루고 있다.

그와 반대로 如來藏心系統에서는 自性清淨만을 讚揚하여 이상에만 치우친 감이 있다. 물론 次界에서도 현실적 衆生世間(染法緣起)의 모습을 설명하

1). 如來藏이란 구체적으로 客塵煩惱에 가리워진 自性清淨心이다.



는데 있어서 煩惱의 존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次界에서는 객진번뇌라고 하여 결코 이 煩惱가 本具心性을 汚染시켜 완전히 타락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²⁾(일시적 동요는 있음)

이렇듯 마음의 本性은 淸淨하고 煩惱는 객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데서 발생된 <如來藏思想>은 <如來藏經>에서 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 하여 처음으로 如來藏이라는 概念을 사용한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如來藏思想의 등장과 함께 이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大乘經典群이 탄생 되었고 이로부터 ①②③기를 거쳐가며 점차 祖職化되고 深化되어 간다.

① 여래장사상 제 1기 경전

如來藏經, 不增佛減經, 勝曼經..이때까지는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 本性不潔의 측면, 즉 如來가 될 수 있는 因正因佛性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② 여래장사상 제 2기 경전

보성론(4~5c 성립 견해)에 이르러 그 思想的 體系가 定立 됨으로써 大乘佛敎의 한 학파적 성격을 띠고 조직화된다. 그러나 아직도 煩惱所染에 관한 考察 (즉 무슨 이유로 煩惱에 물들게 되었나?)하는 문제는 충분치 않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如來藏思想의 이상적인 측면 즉 本性淸淨과 마음의 淨化에만 중점을 두고 추구하는 체계에 머물고 있었다.→돈오적 입장의 선포

이 시기에는 大乘藏儼經論, 佛性論등이 조직되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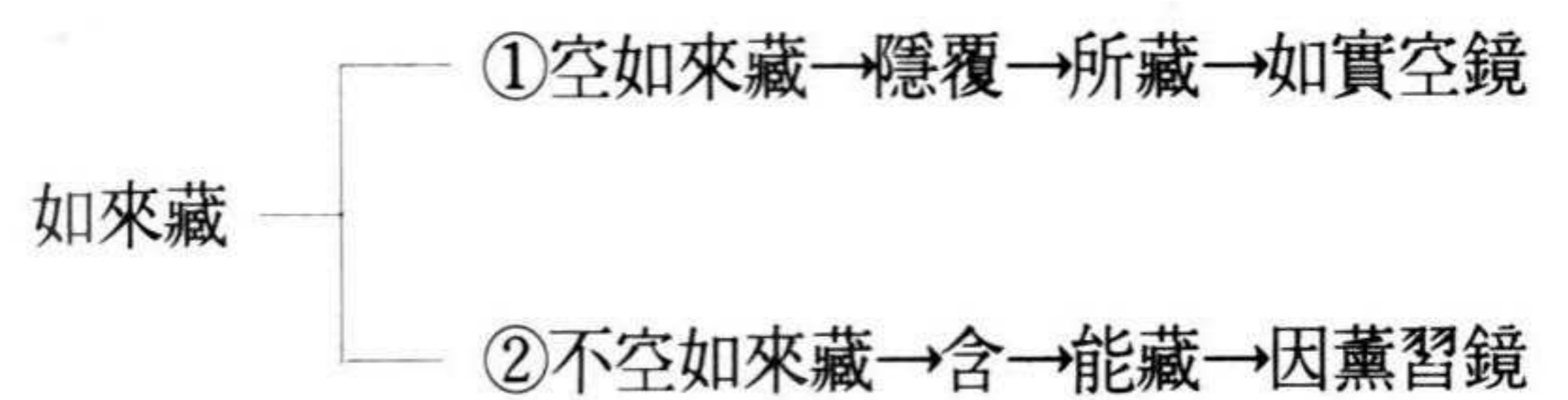
③ 如來藏思想 제 3기 經典

그후 次思想은 Alaya (阿梨耶 : 眞妄與合)식의 체계에 의하여 苦滅諦<마음의 정화>를 해명하기 위해서 원래 苦集諦<마음의 汚染>의 考察에 目標를 둔 唯識說과 交涉을 함으로써 해결이 어려운 <인간의 現實的 마음의 問題>에 접근한다.

이에 속하는 經論에는 능가경 대승기신론 등이 있다.

三. 如來藏의 모습

여러 經論을 통하여 '如來藏'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名義가 있으나 다 찾아보기도 벅차고 다만 반야경의 <空>에 의한 공여래장과 불공여래장을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空如來藏 : 우리의 마음중 諸佛이 證得한 淸淨法身의 體로 如來의 無量한 공덕을 가지고 있으므로 如來藏이라 하여 煩惱와 契合하지 않으므로 空이라 함. 즉 如來의 本體는 不變이며 寂滅, 平等이다. 비록 煩惱에 隱覆되어 있으나, 그 煩惱는 객진이라 결코 결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 染(소금물)가운데에 淸淨(물)만을 잡아 말하

2). 유식계통에서는 業의 種子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연을 기다려 萬法으로 현현함

여래장계통에서는 業의 세력이 本來淸淨한 우리의 마음을 동요(비름, 떨림, 끌어당김) 시켜 우리의 마음 자체가 만법으로 현현함.

유식은 변계소집의 幻의 세계를 말하여 實境이 아님을 말하는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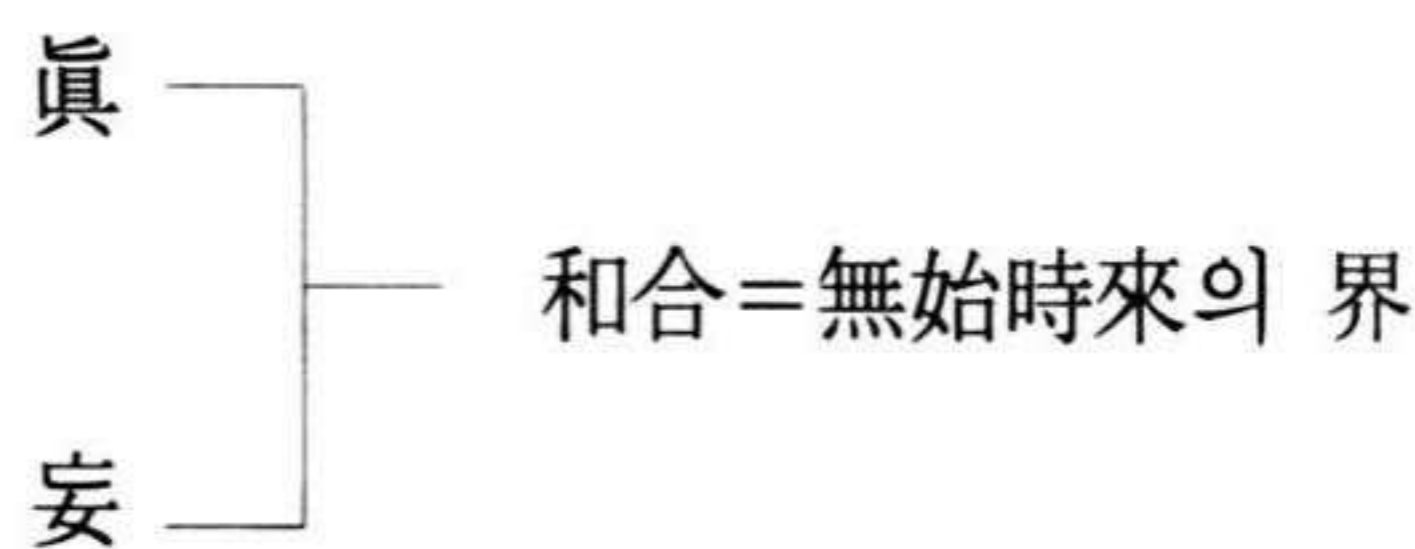
여래장은 '의타기'의 動相의 세계를 말하여 뒤틀린 현실계를 통하여 眞性을 보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고 소금은 썩어서 비록 일시적으로 섞인 듯 하나 결코 합쳐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煩惱가 비록 여래를 구속하나 存在的 立場에서 보면 있는 것이 아닌 幻인 까닭이다. 이를 唯識에서는 便計所集性이라고 하며 노끈과 뱀의 비유를 든다.

비록 無名의 마음속에 뱀이 있어 스스로의 心性을 구속하나 어찌 뱀이 있는 것이라. 즉, 번뇌란 노끈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한 것이라서 오직 주관적 망념에 의해 生起한 幻일 뿐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번뇌의 斷滅이라는 것도 실은 뱀이라는 착각이 없어진 것일 뿐, 원래 없던 것임을. 바로 우리의 마음의 淸淨한 부분을 잡아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에 의해서 法身如來를 證得할 수 있다.

② 不空如來藏 : 一切法은 如來의 智慧德相을 自相으로 하고 있으며 또 煩惱와도 不變不異라고 하는 面이다. 故로 나타내지 못하는 법이 없을 때 不空이라 한다.

예) 모든 물(水: 淸淨하여 자신을 고집하지 않음)은, 흐르는 성질, 적시는 성질, 맑은 성질, 받아들이는 성질 등이 있어 모든 草木을 생장시킨다.



여기에서는 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無始時來로 부터의 性이라면 斷滅할 수 없을 터인데 成佛할 때는 妄을 그대로 두고 성불하는 것인가? 물에서 소금을 제거하고 물만 남겨 성불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마음을 쉬어 성불하는 것인가?

그 해결방법으로는

첫째, 不樂因果(망의 단멸) 不時因果(망에 어둡지 않음)이며,

둘째, 煩惱를 끊지 않는다. 끊으면 衆生과의 통로가 끊어져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金剛經 註에 聖人이 差別없는 중에 差別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데 이는 (無住生心) 진실로 온갖 차별의 근을 끊지 않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의 실체는 잘 보아 어둡지 않고 잘 알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있던 없던 무슨 상관이라. <경계를 다스려 편안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 편안하라> 煩惱라는 것도 결코 나를 괴롭히지 못하니 괴로움의 책임을 번뇌에 묻지 마라. 불 보살은 번뇌를 타고 삼계에 자유로이 출몰하지 않는가?

四. 染法緣起

우리 마음의 모습이 위에서 말한 대로라면 어떻게 自性이 淸淨한 如來의 性이 왜 煩惱를 일으켜 스스로를 잃었는가? 그 최초 원인이 무엇인가? 또 어찌 하면 이 垢縛을 해탈하고 本具의 如來를 현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所謂 如來藏 緣起設이다.

즉, 生死流轉의 과정과 涅槃還滅의 길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所謂 如來藏이라는 말을 아뢰야식으로 대치하여 眞과 亡의 與合을 말하여 해결하려 한다.

① 覺이란 動이며 隨緣이다. <生命이란 動을 내놓고 생각할 수 없다.>

② 그 覺의 動으로 인하여 如來藏이 피로해졌다. 즉, 흐리터분하여 졌다는 것이다. (마음의 흔들림)

有覆無記의 최초 형태와 이것이 身見등을 일으키나니 곧 無明(근본)이다. 覺이 動한다는 것은 明(강생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인가 무조건적으로 밝혀 알려 하는 마음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다. 이것이 唯識說에서는 見分の 성립이다.

③ 이 마음의 흔들림 즉 '明'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른다는 '無明' 이 생겨나게 되었고,

④ 이 '無明의 動搖'는 무엇인가 '알아져야 할' 그 무엇이 幻影처럼 등장하였고,

⑤ 이를 취하는 마음 때문에 소위 業相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자증 증자증하여 스스로 분별하여 六의 거친 번뇌를 야기시키고 이로부터 種子를 만들어 스스로를 구속하고 異熟으로 自己의 業種子에 대응하는 器世間과 衆生世間등을 지어 自相을 삼아 들어앉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번뇌는 幻(잘못봄)이라고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했다. <뱀은 실재하지 않는다. 고로 '잘못봄' 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환인 줄을 알면 <共知> 된다. 끊으려 하지 마라 그것도 잘못이다.

五. 淨法緣起

淨법인 眞如의 自體內로 還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衆生이 本具하고 있는

① 心眞如의 熏習力(자체 정화능력의 발동)과 苦痛을 싫어하고 樂을 좋아하여,

② 涅槃을 찾는 衆生의 감정(포고발심)과,

③ 불보살의 교화에 의하여 당연히 이 幻滅의 길

을 가야 한다는 온당성을 발견하여 이로부터 修行하는 힘으로 淨法の 세계를 이탈하여 眞如界로 환입하는 것을 말한다.

六. 結言

우리가 生死에 流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선천적으로 본래 자연히 見足한 本覺의 如來藏心이 一片의 無明 즉, 根本不覺을 生하여 이 不覺이 점점 증장하여 끊임없는 생사에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초탈하자면 不覺을 퇴치하여야 하는 것이요, 그러려면 始覺의 용맹한 作用(修行)이 필요한 것이다.

① 우선 佛陀가 될 수 있는 性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② 스스로 그릇된 길을 걸어 왔음을 크게 뉘우치며,

③ 누구도 수행에 의하여 成佛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④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 노력에 의하여 근본 자리에 되돌아 갔을 때 여기에는 始·本의 구별이 없어지고 淨法の 진여계만 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니 이것이 淨法緣起의 究意點이며 如來藏을 말하는 目的이다.

- 이 글은 조수동 박사의 "여래장사상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정호영 님의 "여래장사상의 인간이해", "여래장의 존재와 그 존재 근거의 문제"를 더하여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해청당』 후원자를 모십니다

수행의 향훈을!

강원생활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순수 강원지 「해청당」은 학인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아래의 온라인번호로 입금하시고, 「해청당」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해청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우체국 온라인

501676 - 0016222 - 12

예금주

강정신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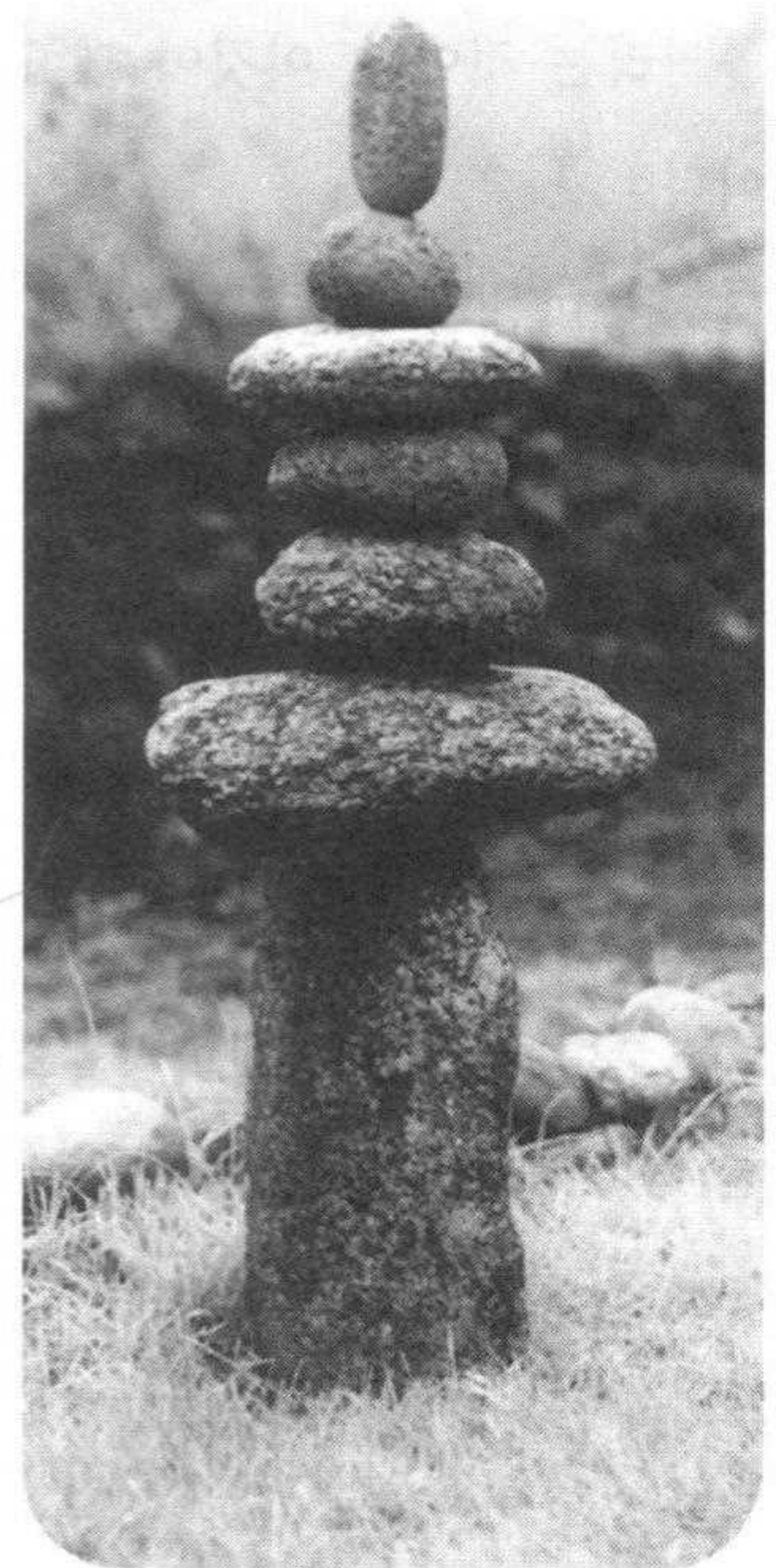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번지, 541-930

송광사 강원 내 「해청당」 편집실

☎(0661) 53-2133, 2350

후원하여 주신 분들

류인석, 도서출판 보림, 익명의 스님, 종무소, 이리불일회, 현봉스님, 이노미, 김혜진, 김원규, 박미정, 고보현심, 한관음자, 박대지행, 이자성행, 심미분, 강진숙, 조진기, 주연등화, 김정희, 류제용, 정연순, 조은영, 이종식, 자재항, 김명실



편집 후기

밤을 새웠다거나 날이 간 줄 몰랐다는 말은 용맹정진 하는데 써야할 말인데, ‘한 권의 해청당이 세상에 던져지기까지는 여러분을 뇌고롭게 하는 곡절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탄전을 피워봅니다.

여름에 한바탕 어려움을 겪고는 모든 일에 좀더 열심히 해서 다음 호부터는 잘 만들어보려고 했건만 여러가지 사정과 게으름 등이 겹쳐서 또 어설피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원전번역의 경우에는 몇 번씩 다듬기를 거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대원사의 현장스님께서도 귀한 원고를 보내주셔서 해청당을 더욱 빛나게 해주

셨습니다.

번역과 논문 등을 게재하면서 새로와진 해청당의 모습을 보이겠노라고 해보았지만 완전한 모습은 찾질 못했습니다.

이제 온통 단풍든 조계산에 부끄럼 숨기러 산행 한번 해야겠습니다..



2539년 동안거

송광사 강원 편입 방부 안내

2539학년도 동안거 송광사 강원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방부받는 반	치문반	편입 〇〇 명
	사집반	편입 〇 명
	사교반	편입 〇 명

제출서류	방부원서	2 부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승적사본	1부
	승려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수료증	1부
	사진 (3 × 4)	3매
	방부금	20만원

준비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발우

전형방법 : 서류, 면접

방부기간 : 2539년 11월 1일 ~ 11월 30일 (양력)

문의처 : (0661)53-2133, 2350

송 광 사 강 원



一柱探碑*

龍頭冠 龜趺頤頭 날아갈 듯 곱트리고
 寺成年 人去趣는 碑文面에 빛나는데
 法孫들 追先圖美가 우리 눈에 빛나라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一柱探碑 일주문 앞의 碑林, 일명 비석거리라고 부른다. 역대 큰스님들의 비석이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다. 송광사 外八景의 하나